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스페셜 리포트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제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원칙이 무너지는 게 문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한국의 소득세율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게 됐

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등 차이는 있지만, 최고세율만 따지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최고세율이 높은 데 반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인구는 적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에서 국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제자는 2018년 기준 722만 명으로 전체 부과 대상의 38.9%에 달했다.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고 있다는 의미다.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도 당연히 '내년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30·50클럽 국가 중 최상위권 근로자 39% 면세...내년 사람 더 내 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세율은 대만, 일본, 미국보다 높다"며 "비과세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사람이 많아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조세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

다.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2018년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73.7%, 상위 1%는 32%를 각각 차지했다. 그나마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경비처리를 통해 과표를 축소할 수 있다. 현금결제는 과표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근로소득자는 세율이나 과표가 조정될 때마다 타격을 입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며 "소득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소득세가 42%든 45%든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고 영세점(세금이 0원)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율은 다양해야 한다"며 "과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를 좁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과세 대상 1인당 유효세율이 2013년 4.9%에서 2018년 7.7%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율 구조 정상화와 함께 면제자를 줄이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소득 공제 축소로 면제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북적이는 논술시험장

서울 주요 대학의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진 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논술고사를 진행한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모 등 일반인의 학내 출입을 금지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불꺼진 명동

5일 서울 명동의 상가 밀집지역이 한산하다. 서울시는 전날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타디움, 놀이공원, 이마트, 백화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카페·마트·식당·영화관 밤 9시 문 닫는다

연말까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노래방·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2단계+알파(a)'에서 2.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이 중단(집합금지)된다.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관련기사 4·5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지난주 400명대에서 이번 주에는 500명대로 증가했다"며 "주말인 오늘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6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감소하는 주말임에도 631명을 기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일부터 나흘째 500명을 웃돌고 있다. 전파 양상도 달라졌



다. 기존 집단감염이 특정 시설·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전파가 늘고 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

리시설 중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운영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업종과 상관없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금지된다. 5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되며,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자동차 개소세 인하 3~6개월 연장 검토

최대 70%로...고효율 가전 환급도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기획재정부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기간을 정해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에 힘입어 승용차 소매판매는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 소매판매 회복세에도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에너지 고효율 가전에 대한 환급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사면 30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9월에 소진됐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한국투자공사〉

‘대통령 연봉 2배’ KIC 사장

지난해 공공기관장 최고 연봉이 4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보다 연봉을 많이 받은 기관은 41곳으로, 총리, 장관 연봉은 기관장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쳤다. ▶관련기사 6면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40개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의 연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장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곳은 한국

투자공사(KIC)로 4억5200만 원이었다. 연봉 상위 3곳 모두가 4억 원을 넘어섰다. 2위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4억1133만 원, 3위 중소기업은행은 4억883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 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만 원), 국립암센터(3억5985만 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883만 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855만 원), 기술보증기금(3억

4.5억원으로 공공기관장 중 최고 예탁원·중소기업은행장 4억 넘어 공공기관 부채 전년보다 21% 늘어

415만 원) 등이 3억 원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 7467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통령(2억2629만 원) 외에 국무총리(1억7543만 원)와 부총리·감사원장(1억3272만 원), 장관(1억 2900만 원), 차관(1억2528만 원)은 모두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쳤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503조7000억 원보다 21조4000억 원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70%에 달하는 231개 기관의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년보다 833억 원 늘어난 4조264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1조2765억 원 적자로 전년도 적자액 2080억 원에서 1조685억 원이 늘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변창흠의 '주거 복지 신념' 공공자가주택 급물살 타나

새 국토부 장관 내정...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새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주택 정책 변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변 내정자는 임차인 보호와 시세차익 환수 등 '주거 복지'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어 그간의 정책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토지임대부 재등판? = 공공주택 전문가로 알려진 변 내정자는 집값 안정 방안으로 줄곧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기관 등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땅을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제외돼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은 앞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바 있다. 2011년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나온 보금자리주택 일부가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공급됐다. 다만 낮은 가격에 공급된다고 해도 전매 제한이 끝나면 집값이 뛸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3+3 등 거주권 보호 정책 강화 가능성 재개발·재건축 규제 유지 무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되 매각 시 적정 이윤만 곱해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팔아야 하는 주택을 말한다. 한마디로 주택 보유자의 건물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변 내정자는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변 내정자는 이 두 제도를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다.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그는 공공자가주택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 | 토지임대부 주택 | 환매조건부 주택 |
|------|--|--|
| 정의 | 공공기관 등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자가 땅을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제도 |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되 매각 시 공공기관에 팔게 하는 제도 |
| 특징 | 토지 가격이 제외돼 분양가 저렴 |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
| 전매제한 | 5~10년(예상) | 10~20년(예상) |
| 공급대상 | 무주택자 | 무주택자 |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재차 역설했다.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해 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신념'으로 굳어진 주택 철학이어서 제도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차인 거주권 보호 강화 무게 = 임차인(세입자) 보호 정책은 더욱 공고화할 가능성이 크다. 변 내정자의 행적을 볼 때 세입자의 존속 거주권 보호는 오히려 가열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의 2년 임대계약을 가혹하게 짧다며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

하는 '2+2+2'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주는 '3+3'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정책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변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펼친 뉴타운 사업을 흑평했던 학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도 당시 뉴타운 사업 추진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인 공공재개발 사업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지만, 이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규제 고삐를 더 짊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이나 공급 확대 정책 등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본인의 정책 기초를 수정해서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천장 뚫은 매매·전셋값을 누를 공급 처방 등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SK그룹 회장>

최태원 "ESG 경영, 위기 극복 해법"... 中·日서 방향성 제시

"투명 경영·사회적 가치 창출 등 인센티브제 도입 참여 독려해야"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 강조하고 나섰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열린 '베이징 포럼 2020'에서 연설을 맡아 ESG 경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3일 열린 '도쿄 포럼 2020'에서도 같은 맥락의 방향성을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베이징 포럼 2020은 최종현학술원과 중



국 베이징대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다.

영어로 개막식 온라인 연설에 나선 최 회장은 "인류의 위기 극복을 위해 ESG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환경·사회적 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ESG 경영으로의 근본적 전환, 사회적 문

제 해결에 대한 측정·평가 수단의 진화, 공감에 기반을 둔 사회적 포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화폐화 기반의 글로벌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 표준화와 확산을 위해 출범한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머지않아 ESG 측정 체계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확신에 찬 자신의 견해를 강조했다.

나아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를 소개하며 "ESG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ESG 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서 3일 최종현학술원과 일본 도쿄대가 '지구환경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도쿄 포럼 2020' 개막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의 경영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ESG 경영을 가속화하는 것이 환경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런 경영전략에는 ESG 가치 측정체계가 고도화할수록 기업들의 행

동도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서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이 직접 "기업의 ESG 경영성과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제도를 소개한 것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이런 전략과 시스템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와 환경재앙, 무관심, 증오 등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

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

2020 북극협력주간

12.7 Mon. ▶ 12.11 Fri.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2층 오키드룸

LIVE WEBINAR

| DAY 1 12.7 월 | DAY 2 12.8 화 | DAY 3 12.9 수 | DAY 4 12.10 목 | DAY 5 12.11 금 |
|----------------|----------------------------|---------------------------|----------------|-------------------|
| 개막식 | 정책의 날 | 과학·기술의 날 | 해운의 날 | 시민의 날 / 폐막 |
| 극지해설사 컨퍼런스 개막식 | 북극 인문사회연구 세미나 제9회 북극해 정책포럼 | 한국 북극과학연구 세미나 국제북극과학협력세미나 | 제9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 시민극지강좌 폐막 |

특별세션

12.7 월 한-러 북극협의회, 한-러 북극 비즈니스 대화 12.10 목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세미나 12.8 화 북극 차세대 대화 12.11 금 극지전문인력양성 성과발표회, 북태평양연구기관협의회(NPARC) 세미나

부대행사

• 온 라 인 개최 극지상식골든벨대회, 극지 사진전, 극지농술대회 수상작 전시, 러시아 다큐 멘터리
• 오프라인 개최 극지사진전(Arctic Photo Exhibition) ▶ 일시/장소 : 12.7.(월)~12.11.(금) / 부산시청 도시철도 지하도로

주 최 해양수산부 외교부 주 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PRI 극지연구소 협력 부산광역시, 영산대학교, 한국외대 극지연구소,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극지해양미래포럼,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북극학회,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주한러시아대사관

문 의 2020 북극협력주간 사무국

〈소득 상위〉

票논리에 10년째 '0.05% 쥐어짜기'... 세수 한계봉착

조세저항에 무너진 납세원칙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설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제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최고세율만 10%포인트(P)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이하 소득세법 개정 연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올리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3억 원 초과)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3년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기존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2016년에는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과표 5억 원 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소득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2017년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이고, 올해 다시 45%로 인상했다. 45% 세율은 내년부터 과표 10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 4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국민은 약 1만6000명(소득 상위 0.05%)으로 이들이 연간 약 9000억 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보수와 진보 성향 정권이 번갈아 가며 들어섰던 최근 10년간 정권을 잡은 진영은 조세저항이 두려워 이처럼 손쉬운 과세인 '부자증세'를 추진했다.

◇부자증세 세수에는 도움 안 돼 = 최고세율 인상으로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보수·진보 불문 '부자증세' 남발 MB, 3억 초과 세율 35%→38% 박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30·50클럽 국가 중 미국(37%), 이탈리아(43%)보다 높고, OECD 회원국 중에선 호주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의 소득세율 인상은 다른 선진국의 소득세율 인상과 상황이 다르다. 최고세율이 높고, 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높다. 증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만, 실제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적·상징적 목적의 증세다.

벨기에의 경우 최고세율(50%)이 적용되는 구간이 원화 기준으로 약 5618만 원이다. 우리와 최고세율이 같은 호주는 1억 5387만 원이다. 최고세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대체로 고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계층이 넓게 분포돼 있다. 과세 형평성이 비교적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낮은 세율, 근로소득공제,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일부 초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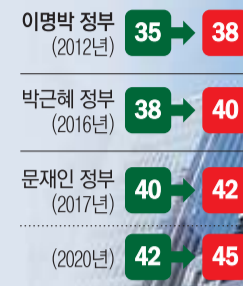
◇사라진 '보편적 증세' = 한국의 소득세는 유독 보편성이 약하다. 국내 세수에서

| 과세 기간 | 2010~2011년 | 2012~2013년 | 2014~2015년 | 2017년 | 2018년~ | 개정안 |
|---------------|------------|------------|------------|----------|----------|----------|
| 1200만 원 이하 | 6 | 6 | 6 | 6 | 6 | 6 |
| 1200만~4600만 원 | 15 | 15 | 15 | 15 | 15 | 15 |
| 4600만~8800만 원 | 24 | 24 | 24 | 24 | 24 | 24 |
| 8800만~1.5억 원 | | | 35 | 35 | 35 | 35 |
| 1.5억~3억 원 | | 35 | 38(+3%p) | | 38 | 38 |
| 3억~5억 원 | 35 | 38(+3%p) | | 38 | 40(+2%p) | 40 |
| 5억~10억 원 | | | 38 | 40(+2%p) | 42(+2%p) | 42 |
| 10억 원 초과 | | | | | 45(+3%p) | 45(+3%p) |

※ 출처: 기획재정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변동

(단위: %, 소득세법 개정일 기준)



비중이 큰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 가지다. 이 중 법인세는 국제조세 측면이 있는 데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편차가 커 기업 매출 구간별 직접비교가 어렵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OECD 평균(약 18%)과 비교해선 세율이 낮지만, 역진성 탓에 증세가 어렵다.

남은 건 소득세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돼 보편적 증세 시 조세조항이 강하다. 이로 인해 역대 정부는 대체로 소득세를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부자·서민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부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절대다수인 서민층의 지지를 얻는 식이었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소득세는 세수효과 없이 최고세율만 10%p 올랐다. 최고세율 45%를 적용받는 대상은 지난해 소득자

료 기준으로 1만6000여 명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제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최고세율 인상 전문가 의견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축소... ‘보편증세’ 바람직”

'부자증세'도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최고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고세율만 올렸던 그 효과도 크지 않아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의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45%)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존 최고세율(42%)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1만6000여 명이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내년에 약 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효과만 고려하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증세로 보긴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른 최고세율 인상이

다. 이명박 정부 말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개 정권을 거치며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45%로 10%포인트(P) 인상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실질적 최고세율은 50% 가까이 된다.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뿐더러 이런 국가는 복지수준이 높다”며 “현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과세하는 제도적 특수성이나 우리나라의 상대적 복지수준, '세금 혜택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수준의 최고세율도 매우 높다. 추가적 최고세율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증세 과정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다른 수입확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자증세는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을 강화할 때 보완적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세수구조를 보면 소득공제를 비롯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현재 주식 양도소득도 비과세이고, 농어업소득도 비과세다. 정작 필요한 건 최고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특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회원국 평균(약 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부가세 인상은 정부에 큰 부담이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져, 같은 수준의 소비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소득 대비 부가세 부담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커지는 역진세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강하고,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외부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롯데건설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 19년 연속 수상!
KSA 전국포럼장

2,339세대 대단지 & 최대 커뮤니티가 온다!

동탄 그 이상의 가치

하늘처럼 높은 캐슬의 자부심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라크

건본주택 사전방문 예약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건본주택 운영을 사전방문 예약과 사이버 M/서로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본주택 직접 방문관람은 당사가 정한 시간대별 한정된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사전예약 방법

① 검색창에서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라크(www.오산롯데캐슬스카이라크.com) 검색 후,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라크 홈페이지에 방문 후 사전 방문예약 페이지 접속 후 예약

■ 관람가능 기간 : 11월 27일 ~ 12월 13일 (변동 가능) ■ 관람가능 시간 : 10:00 ~ 17:00 (1시간 간격 관람)

건본주택 성황리 개관중

다 있다! 더 크다! -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라크

| | | | |
|--|---|---|---|
| <p>가치특권</p> <p>프리미엄 브랜드 롯데캐슬의 자부심과 2,339세대 랜드마크 대단지의 미래가치</p> | <p>커뮤니티특권</p> <p>실내수영장, 실내골프클럽, 피트니스, 어린이도서관, 카즈점 등 오산 최대 커뮤니티</p> | <p>전망특권</p> <p>마등산 푸른숲과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망권을 누리는 4면 숲세권 친환경 단지</p> | <p>생활특권</p> <p>단지 바로 앞 원당초등학교는 물론 오산C, 롯데마트, CGV 등 편의시설 인접</p> |
|--|---|---|---|

| □ 청약일정 | 특별공급 | 1순위(당해) | 1순위(기타) | 2순위 | 당첨자발표 | 정당계약 |
|--------|---------|---------|---------|----------|----------|----------------|
| | 12.7(월) | 12.8(화) | 12.9(수) | 12.10(목) | 12.16(수) | 12.27(일)~31(목) |

1811-7890

총 2,339세대
65㎡~173㎡P(전용면적)

현장: 경기도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
건본주택: 경기도 오산시 원동 176-1



※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 공회CG 및 내장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현장 위치: 경기도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 ※ 규모: 지하 3층~지상 23층(총 18개동) / 총 2,339세대 ※ 시공수탁사: (주)롯데건설사설 ※ 시공감독사: (주)영에스올원스 ※ 시공사: 롯데건설(주)

종교집회 비대면·20인 이하로... “대유행 막아야”

일주일간 일평균 감염 500명 ↑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 자제를”
직장인 3분의 1 재택근무 권고

방역당국이 8일 0시부터 3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 2단계로 일제히 격상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했던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회의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30일~12월 6일) 전국의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이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전국 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정세균(맨 왼쪽)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2월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이 주가 처음이다.

박 차장은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제화에 해당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

을 자제하고 최소화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직장에 인원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학교에선 밀집도 기준이 3분의 1로 강화해 원격수업이 확대된다. 학원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화관, PC방, 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

거리두기 2.5단계 사회·경제적 방역 조치 (2.5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 |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

* 출처: 보건복지부

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한다. 숙박 시설 주관 파티·행사는 인원과 관계없이 금지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중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됐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금

지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한 실외까지 확대된다.

박 차장은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부분 봉쇄 조치로서 3단계 봉쇄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에 적용되던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3차 재난지원금 3兆, 자영업자·소상공인 뭉

특고·저소득층 빠졌지만 지급 규모 추가 댄 포함 가능성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추후 포함될 여지는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뭉으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예산 협의에 정통한 당 관계자는 “여야가 최초로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 원 정도 소요를 고려해서 이번엔 3조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 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 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

금 예산 규모만 고려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 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000억 원), 저소득층 패키지(4000억 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 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

선 ‘3조 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 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로도 부족할 경우 추경 편성 등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기업 10곳 중 7곳 “내년 경영 계획도 못 짰다”

전경련 매출 1000대 기업 조사
철강·자동차 부품업계 고통 커
“내수 부진...세계 지원 급선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년 경영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계 지원과 함께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151개사)의 71.5%가 내년도 경영계획의 ‘초안만 수립(50.3%)’했거나 ‘초안도 수립하지 못했다(21.2%)’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자동차부품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강 업계는 경영계획을 확정할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자동차부품 업종도 ‘확정’하지 못했다(76.0%)’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 건설 및 일반 기계 업종도 경영계획 미확정 비율이 75.0%에 달했다. 반면 디스플레이(66.7%), 반도체(40%) 업종의 경우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환율, 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19.3%) △고용,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 부담(14.5%) △미·중 갈등 지속 등 무역 불확실성(9.8%) △정치적 갈등 및 기업 규제 부담(8.1%) 등이 꼽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해 긴축경영과 적극적인 자구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가 최근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는 ‘내수 부진(2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출 애로(24.2%) △원가 부담(22.8%) △생산 차질(8.7%) △부채 부담(7.3%) △자금 부족(6.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기업 지원 정책으로 ‘세금 인하 및 투자 활동에 대한 세계 지원(3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긴급 운영자금 및 융자 지원(16.3%) △기업규제 완화(15.6%) △환율 등 대외변동성 관리(11.5%) △해외 시장 및 거래처 다변화 지원(9.5%) △물류·운송 관련 애로 대응(8.8%) △기업 사업재편 지원(7.8%)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이날 발표한 ‘2차 코로나발 경제 충격파에 대비하자’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방역이 최우선돼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재정 정책 방향은 ‘코로나와 함께(with corona)’와 ‘코로나 이후(post corona)’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절충적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전방위적 통상 전략 마련, 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산업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권태성 기자 tskwon@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출입구 앞 안내문에 변경된 영업 마감시간(저녁 9시)이 안내되어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9시 통금’...유통가 “연말연시 대목 실종” 수심

마트, 온라인으로 만회 안간힘
편의점도 유통인구 줄어 타격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사실상 밤 9시 통금이 실시되면서 유통가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새해로 이어지는 연말연시에 전반적인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 영업시간 제약 커진 대형마트 = 특히 직접적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긴 곳은 대형마트다. 대형마트는 통상 오전 10시에 문을 연 후 오후 11시나 12까지 영업해왔다. 통상 심야 시간대 소비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최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쇼핑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밤 9시 이후 매출이 늘고 있던 터라 9시 폐점에 아쉬움이 크다.

낮은 시간대 영업 제한으로 온라인 영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SSG닷컴의 ‘쓱배송’이나 롯데온의 ‘바로배송’ 등은 대형마트 점포 내 상품을 주로 배달하지만, 주로 낮과 저녁 시간대 배송이 이뤄져 밤에는 상품 배송을 준비하는 피킹과 패키징 작업이 거의 없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을 주로 판매해 영업시간이 줄어들어도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백화점, 소비 심리 회복에 찬물 우려 = 백화점은 영업 시간대에 직접적인 타격 영향권은 아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며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연말 특수가 있는 4분기는 가격대 높은 겨울 패션 상품들이 주로 팔려 백화점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대목 시즌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 보복소비로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던 백화점 업계로서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점이 더욱 아쉽다.

실제 9월까지만 해도 주춤하던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은 10월 중순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영향 조정이 겨울 정기 세일 기간과 겹치면서 다시 죽을 썴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세일 매출은 각각 8%, 4% 감소했다. 다만 명품이 떠받쳐준 신세계는 3.9% 매출 증가로 선방했지만, 세일 전 10%대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얼어

붙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유희·학원가 편의점 매출 줄 듯 =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역시 9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는 업종이 아니어서 오히려 대형마트 폐점의 최대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한편 편의점 관계자는 “아무래도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일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순 없는 처지다. 독서실과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이 일제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데다 시내버스와 지하철까지 단축 운행하게 되면 학원가, 유희가 등의 유통인구가 감소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상관별 분포 현황은 주택가 46%, 유희가 12%, 오피스 6%, 학원가가 4%를 차지하고 있다.

편의점은 최근 배달 주문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어 유통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기요에 이어 위메프와 네이버를 통해 주문 배달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CU의 지난달 네이버 스마트주문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3월 대비 무려 315.9% 늘었으며 같은 기간 주문 금액 또한 389.8% 경증 뛰었다.

남주현 기자 jooh@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2/14(월)까지

※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일자리안정자금 🏠 <http://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7억... 3년 임기 보장 '꿀보직'

공공기관장 연봉 상위 20곳

(단위: 원) ※ 2019년 기준

| | | |
|----|-----------------|---------|
| 1 | 한국투자공사 | 4억5200만 |
| | 한국에탁결제원 | 4억1133만 |
| | 중소기업은행 | 4억883만 |
| | 한국산업은행 | 3억8420만 |
| 5 | 한국수출입은행 | 3억8420만 |
| | 국립암센터 | 3억5985만 |
| | 기초과학연구원 | 3억1883만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3억855만 |
| | 기술보증기금 | 3억415만 |
| 10 | 한국과학기술원 | 2억9539만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2억9467만 |
| | 신용보증기금 | 2억9173만 |
|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2억8440만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억8243만 |
| 15 | 예금보험공사 | 2억8113만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2억7976만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2억7805만 |
| | 인천국제공항공사 | 2억6682만 |
| | 한국중부발전 | 2억6448만 |
| 20 | 한국전력공사 | 2억6172만 |

공공기관 부채 상위 10곳

(단위: 원) ※ 2019년 기준

| | | |
|----|-----------|---------|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 4조2642억 |
| | 한국전력공사 | 1조2765억 |
| | 한국광물자원공사 | 5051억 |
| | 서민금융진흥원 | 2408억 |
| 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853억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1200억 |
| | 한국철도공사 | 1093억 |
| | 대한석탄공사 | 844억 |
| | 근로복지공단 | 649억 |
| 10 | 한국광해관리공단 | 571억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경영평가 따라 수억대 성과급
정무직 차관보다 연봉 더 받아

금융 관련 기관 성과급 150%
政·官 출신 인사 '낙하산' 만연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기관장 '연봉 킹'은 한국투자공사가 차지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해 4억52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 원이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연봉 중 가장 고액은 한국투자공사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가장 높은 기관장 연봉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에탁결제원(4억1133만 원), 중소기업은행(4억883만 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 원), 한국수출입은행(3억 8420만 원), 국립암센터(3억5985만 원), 기초과학연구원(3억1883만 원), 한국해

양진흥공사(3억855만 원), 기술보증기금(3억415만 원), 한국과학기술원(2억 9553만 원)이 기관장 연봉 상위 10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20개 기관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2억9467만 원) △신용보증기금(2억 9173만 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억8440만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억8243만 원) △예금보험공사(2억8113만 원) △한국자산관리공사(2억 797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억 7805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 6682만 원) △한국중부발전(2억6448만 원) △한국전력(2억6172만 원)이 이름을 올렸다.

34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전체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67만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기관장 평균 연봉이 2억381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장형 공기업 2억2801만 원, 준시장형 공기업 1억9512만 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1억7148만 원, 기타공공기관 1억6625만 원 순이었다.

공공기관장 연봉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5년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019만 원에서 2016년 1억6519만 원으로, 2017년 1억6620만 원, 2018년 1억6937만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억7000만 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장 연봉은 정무직 차관 연봉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차관 연봉은 1억 2528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장은 기본급에 성과급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수억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장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전

년도 기본 연봉의 최대 12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경영평가만 좋다면 기본 연봉보다 많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특히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형 기관은 성과급을 1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장 연봉 상위는 대부분 이들 금융권 공공기관이 차지했다. 직원 2만 명·자산 50조 원 이상인 대형 공기업은 연봉의 11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가만 잘 받으면 억 단위에 이를 수 있다.

높은 연봉에 3년의 임기 보장 등 이른바 '꽃보직'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장 자리는 퇴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선호한다. 특히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기 일쑤다.

지난해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중 약 20%가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라고 지적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성·전문성·책임감 있는 프로그 공공기관장으로 와야 한다"며 "낙하산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시각에 맞춰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고 임금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살찐 고양이법'을 추진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고경영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이 법이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는 광역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상한선을 못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매일 하는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현대인의 문제적인 식습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녹차 정제



고열량, 고탄수화물, 고당류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 골드의 녹차추출물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항산화, 뼈 건강 관리
비타민C, 녹차추출물이 함유되어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비타민D가 함유되어 뼈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그린 골드만의 프리미엄 정제 기술 적용
아모레퍼시픽만의 녹차 정제 기술을 높여, 정제를 만들고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37가지(아산화티타늄,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아산화규소)를 함유하지 않았으며, 장용성 코팅 기술로 더욱 속 편하고 부드럽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텍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공공기관 부채 525兆 '최대' 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공공성 강화' 정부 정책 기조 여파
전체 국가부채의 3분의 1 수준
'고통 분담·경영 개선 노력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의료비 지급액이 늘면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도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20조 원 이상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연봉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와 사업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인 만큼 주요 기관은 지출 부문 개선과 현실적 수익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는 52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03조7000억 원에서 21조4000억 원 더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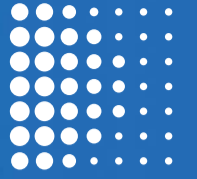
방만경영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 공공기관도 성과 중심의 정책이 후퇴하고 방만해지는 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고임금 사업장인 만큼 이들이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1743조 원의 3분의 1, 국가채무 728조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공기업·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6%를 넘어섰다.

올해는 공공기관장의 연봉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정무직 차관 연봉 기준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와 올해 기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성과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4조2642억 원이었다. 한국전력공사가 1조2765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 임원의 성과급 10% 이상을 자율납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반납분은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시작

언택트, 디지털 뉴딜

디지털로 빠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당신의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KT Enterprise가

AI, Big data, Cloud의 앞선 기술과
기업 유무선 통신의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공수처 막판 협상... 與, 불발 댄 '개정안' 강행 방침

국민의힘 "새 후보 내서 합의" 민주당 "오늘 법사위서 처리"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가 최종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시한을 6일로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새 후보를 내서라도 처장 후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기존 후보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간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

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의지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이 최종 협의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9일까지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 처리 의지를 민주당과 결사 저지 입장인 국민의힘이 격돌하며 극한 대립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공수처장)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한 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이 어떻게 거부권 남용이 되겠느냐"며 "우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 민주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협의의 지속을 전제로 경제 3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 타

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단행한 4개 부처 장관 인사 청문회를 위해서도 임시국회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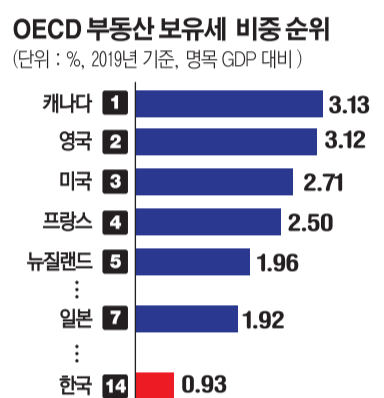


'청년국민의힘' 창당 김중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에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증가율 OECD 최고

명목 GDP 중 0.93% 차지... 종부세 증가·공시가 상승 영향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보다 낮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1%포인트(P) 늘어난 0.93%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였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에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 7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증가해서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긴 하지만,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비중이 3%대인 캐나다, 영국이나 이 수치가 1~2%대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다. 35개국 평균(1.01%)도 밑돈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고 있다.

세금이 불어난 만큼 GDP도 늘었다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터키는 작년에 보유세가 11.2% 증가했지만 명목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를 따진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올리는 요인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원전수사 공방... 與 "표적수사" vs 野 "윗선 규명"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지나쳐"... 野, 탈원전정책 압박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

년간의 감사원 감사, 8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법원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강석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 총리(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키는 말)'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나"며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적인 자료 폐기의 흑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 "초유의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증거인멸 뿐만 아니라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살아 숨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며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야생조류 AI 항원 12건 무더기 검출

환경부,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무더기로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거·채집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 개체 시료에서 12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은 전남

나주시 우습제 및 지석천·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천군 덕암저수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경기도 이천시 북하천, 전북 정읍시 동진강·군산시 만경강 등이다. 이들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 환경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

플루엔자 항원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H5형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방 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주변 철새도래지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자체나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담합 CJ대한통운 등 12곳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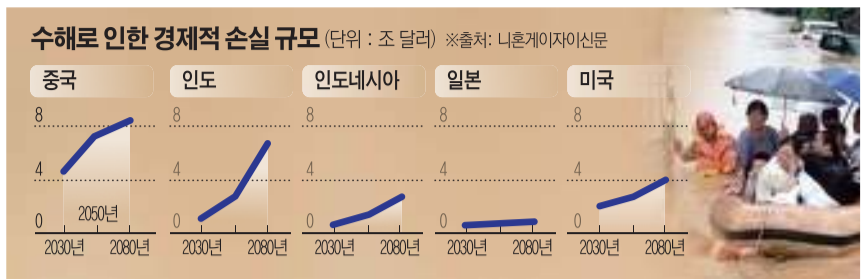
공정위, 과징금 54.5억 부과

12년에 걸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입농산물 운송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CJ대한통운 등 화물 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화물운송업체 12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며,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전체 60건의 입찰 중에 50건이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은 물량은 애초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면서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12곳은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이다. 이중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12개 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년 3월~2018년 1월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쌀·참깨 등) 운송용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에 각각의 입찰에 대해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

공정위는 담합은 한 12개 업체 대해 각각 3억4300만 원~5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디티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화물운송 전 분야의 담합 예방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기후변화 덮친 아시아 홍수피해액 年 9230兆

<2030년>

中, 올해 범람 하천 80% 많아
亞 31%가 강수량 50% 늘어
印, 수해 사망자 1400명 넘어

아시아 경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증가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전 세계에서 하천 범람 등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볼 지역의 경제 규모가 오는 2030년에 연간 17조 달러에 이르고 아시아가 8조5000억 달러(약 9231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이라고 6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가 더 절실해졌다.

중국 장강(長江·양쯔강) 중류에 있는 쓰촨성 리산시는 8월 중순 이상 강우에 따른 홍수로 많은 기업이 큰 피해를 봤다. 현지 한 비료 생산업체는 공장이 침수돼 기계 파손과 재고 손실 등으로 3억 위안이 넘는 손해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빈번해질 전망이다. 중국에서 올해 1~9월 범람한 하천은 예년보다 80% 많은 836곳에 달했다. 이에 따른 이재민은 7300만 명으로 이전 5년 평균보다 20% 많았다. 농업과 양식업, 상공업 등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 규모는 30% 늘어난 2000억 위안(약 33조 원)에 달했다.

중국은 홍수 대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8월 잇따라 피해 지역을 시찰했다. 공산당 서열 1, 2위인 두 사람이 동시에 베이징을 비우는 이례적인 행동은 그만큼 지도부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공장과 주택 입지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전 세계를 약 1km의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 중 홍수 등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산해 경제적 피해 규모를 산출한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시점에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의 GDP는 총 17조 달러로, 전 세계 GDP 전망치의 12%에 해당한다.

중국이 피해 규모가 4조6000억 달러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 규모 상위 5개국 중 4곳을 아시아가 차지한다. 유효한 대책이 없다면 아시아의 피해액은 2050년에 14조 달러, 80년에는 24조 달러까지 팽창할 전망이다.

이것은 홍수 피해로 GDP 전체가 소실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을 것이지만, 기후변화가 아시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신문은 경종을 울렸다.

아시아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로 수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 데이터가 있는 아시아-시베리아 지역의 약 170곳 관측 지점에서 올해 7월 예년보다 강수량이 50% 이상 많은 곳이 전체의 31%인 53곳으로, 최근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장강 유역에 있는 우한과 상하이 강수량은 예년의 2.3배에 달했고 일본 오사카는 2.6배였다.

특히 아시아는 수해를 방지할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인도 전역의 호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1400명을 넘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중앙銀 ‘헬리콥터 머니’ 재시동

연준·ECB, 코로나 재확산에 ‘양적완화 확대’ 검토... 자산 버블 리스크도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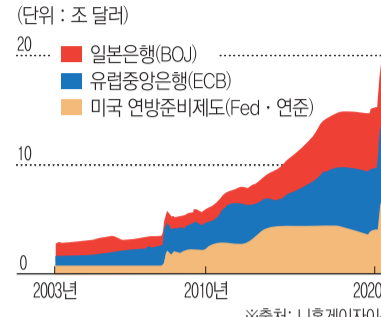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다시 새로운 금융완화 정책에 돌입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더블딥(이중침체)에 선제 대응하고자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공급, 신용 경색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자금 공급이 미증유의 영역에 돌입하면서 자산 버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5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개최 예정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융정책 재조정엔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유럽 각국의 외출 제한 등으로 기업 채감경기는 10월 이후 크게 위축했다. 장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금융 환경 조성이 ECB의 최대 과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ECB가 코로나19 사태로 신설한 팬데믹긴급매입 프로그램(PEPP) 기간을 현재의 내년 6월 말에서 1년 더 연장하고 프로그램 규모도 기존 1조3500억 유로(약 1785조 원)에서 5000억 유로 더 늘릴 것으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자산 규모 추이



예상했다. 신용 경색 방지를 위해 ECB가 은행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목표물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확충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

위기 대응을 강요당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마찬가지다. 연준은 3월 양적완화를 재개, 미국 국채를 월 800억 달러(약 87조 원), 모기지 담보부증권(MBS)은 400억 달러 각각 매입해왔다. 연준은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이런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경제는 공적 지원이 잇따라 만료하고 있고 여야 대립으로 재정적 부양책의 추가 투입이 지연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ECB와 연준 모두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할 시련에 대비해 시중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금리가 낮은 상태로 안정되면 재정적 부양책 투입이 수월해지고 기업 도산 증가세를 막을 수 있으며 미래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일본은행(BOJ)도 17~18일 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140조 원(약 1462조 원) 규모인 기업 자금융통지원책 만기를 내년 3월 말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닛케이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이례적인 통화정책 완화 장기화로 자산 버블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3개 중앙은행의 총자산은 현재 20조 달러를 넘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약 네 배 커진 것이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증시 3대 벤치마크인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4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3억km밖 소행성 흙 담긴 캡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직원이 6일(현지시간)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에서 이날 새벽 호주 남부 우메라 인근 사막에 떨어진 캡슐을 회수하고 있다. 이 캡슐에는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가 담겨 있는데 태양계와 지구 생명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야부사2는 전날 오후 지구에서 22만km 지점에서 캡슐을 떨어뜨리고 궤도를 변경, 새로운 소행성 탐사에 들어갔다. 우메라/EPA연합뉴스

“백신 나와도... 美 사망자 4월까지 두 배 증가”

미국 정부가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접종을 시작해도 당분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상황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0일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 이르면 그다음 날 첫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공급 프로젝트 ‘워프 스피드’의 수장인 몬세프 슬라우이 수석 고문은 “12월 11일 또는 12일에 미국 전 지역 사람들이 첫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되면서 우선 접종 대상자가 늘고 있고, 배송 초기 물량도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1일 최전방 의료 종사자

와 장기요양시설 거주자들이 최초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집단이 총 2400만 명으로 추산된 가운데, 화이자 이외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아도 접종이 완전하게 이뤄지긴 힘든 상태. 현재 보건 당국은 두 회사가 이달 말까지 4000만 회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인당 2회 접종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2000만 명만 받을 수 있다.

CNN방송은 화이자가 이달 중순이 돼서야 640만 회분 정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뿐더러, 자체 조사 결과 27개 주가 1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백신이 보급된다 하더라도 사망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내년 4월 1일까지 미국 내 누적 사망자는 53만9000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존스홉킨스의대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27만9000명이 사망했는데, 이보다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대명 기자 kodae0@

“테슬라 망한다” 공매도 베팅한 투자사 올해 주가 600% 치솟아 38兆 날렸다

올해 시장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웃고 울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에 촉폭을 터트린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속앓이를 하는 곳도 있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 폭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베팅했던 투자업체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봤다. S3파트너스 분석 결과, 이들 공매도 업체의 올해 손실 규모가 350억 달러(약 38조1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1~9월 미국 항공업계가 보고한 역대 최악의 손실인 242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이호르 두자니스키 S3 공매도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매도 업체들은 테슬라 주가가 46% 뚫어낸 지난 달에만 85억 달러 손실 기록을 기록했다. 이는 테슬라가 첫 실적을 보고한 2008년

부터 작년 말까지 11년간 기록한 누적 손실 67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다.

한편 테슬라의 향후 주가 전망은 엇갈린다. 시장에서 테슬라는 호불호가 뚜렷한 주식 가운데 하나다.

일부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무한 가능성을 지닌 친환경 패러다임 체인지이자 선두주자로 보고 있다. 적자에 시달리던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력을 끌어올리면서 작년 말 흑자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주가가 600% 이상 치솟으며 시가총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 전통 강자인 도요타·폭스바겐·다임러·제너럴모터스(GM)의 시총을 다 합친 수준에 올라섰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가 780달러로 높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의

테슬라 주가 추이 (단위: 달러, 현지시간 종가 기준)



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비중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산업 대장주들의 경우 전체 주식 중 공매도 비중이 1~2%에 불과한 반면 테슬라는 6%에 달한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스 대표는 테슬라에 공매도를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현재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테슬라 보유 주식의 25~50%를 팔라”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jimg2@

막 오른 은행권 임원 인사...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

올해 임기 만료 임원 전체의 74% 인정·변화' 비중 따라 규모 판가름 디지털금융 전담조직 인력 확충

연말을 맞아 은행권이 임원 인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4대 시중은행이 '안정'과 '변화' 중 어느 방향을 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점도 연말 인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급 인사가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64명에 달한다. 경영진이 안정과 변화 중 어느 방향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인사 폭이 달라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명의 임원 가운데 허인 국민은행장 등 5명을 제외한 임원 18명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고, 부행장 6명 전원도 이달 임기가 끝난다. KB국민은행은 대개 12월 말 조직



개편과 함께 임원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조직개편 방향이 임원 인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임원 24명 가운데 진옥동 은행장, 허창인 상임감사, 부행장 14명 등 16명의 임기가 이번 달까지다. 일단 2년 임기를 채운 진옥동 행장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신한금융지주가 먼저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은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이후 은행장이 부행장 인사를 하는 순서가 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은행장 직속 디지털 혁신 조직인 '디지털 혁신단'을 신설하고, 이를 이끌어갈 외부 전문가로 KT 출신의 김혜주 상무와 SK C&C 출신의 김준환 상무 등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최근 영입한 바 있어 연말 인사에도 디지털 혁신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부행장 6명, 전무 11명 등 총 17명의 임원 가운데 16명이 이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부행장 6명 중 5명, 전무 11명 전원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

다만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만큼, 연말 인사에서 임원의 대거 교체보다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 관측이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최근 디지털 금융을 담당할 임원급 핵심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전문가 인력 풀을 운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디지털 분야 임원 인사 풀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은행은 임원 23명 가운데 부행장 3명 전원과 부행장보 10명 전원, 상무 1명 등 14명의 임기가 이번 달까지로, 이달 안에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연말 인사와 내년도 조직개편 방향의 키워드 역시 디지털로, 디지털

에 최적화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한 인사와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사업그룹 간 시너지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장 먼저 연말 인사를 단행한 농협 금융지주는 지난 5일 농협은행 새 부행장 6명을 선임했다. 부행장 직급 14명 가운데 외부출신인 준법감시인과 디지털금융부문을 제외하면 12명 중 절반이 교체됐다.

농협은행은 내년부터 디지털금융부문 내 부서를 기존의 전략, 채널, 마케팅 등 기능별 분류에서 개인, 기업 등 고객군별 분류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또, 농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자 현재의 농업·공공금융부문을 '농업·녹색금융부문'과 '공공금융부문'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코로나19 장기화에 커진 불확실성 은행 '연말 배당' 줄어드나

금융당국, 리스크 대비 차원 개별 은행과 축소 협의 돌입 "은행주 매력 떨어져" 우려도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결산 배당 축소 방안을 두고 협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금융지주)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은행 배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개별 은행과 연말자 회의를 열어 배당 축소안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 대비 차원에서 예년보다는 배당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은행권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코로나19 시나리오별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

성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 배당 관련 지침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내 은행의 올해 경영실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점, 배당 제한 시수가 하락으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배당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은 데다가 수익성도 악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까지 축소한다면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은행주 매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결산배당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주주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비는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더 장기적으로 배당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적정성 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배당 제한 요구가 현행 법규로 가능한지, 추가 평가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swanicoco NATURAL COSMETIC

식약처 인증
100% 천연화장품

더자연 블랙보리

진정(鎮靜)에
진정(眞情)을
더하다.

Black Barley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보호' 상시 평가제 도입

3000개 금융사 점수·등급 부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활용·관리하는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연 1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데이터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활용 방식이 다양해져 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상호금융, 대부, 신용평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3000개 금융사에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내년 2월 도입한다.

금융위는 동의·수집·제공·삭제 등 정보의 생애 주기(Data Life-Cycle)에 따라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9개 대

항목과 143개 소항목으로 평가 항목을 구체화했다.

금융사는 항목별 준수 정도에 따라 4단계(이행·부분 이행·미이행·해당 없음)로 구분해 평가하면 된다. 금융사는 직전 연도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실태를 자체 평가해 결과를 금융보안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사 등의 제출 내용을 점검하고 점수와 등급을 부여한다. 일정 기간 점수가 우수하고 사고가 없는 곳에는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수·등급 부여 방안과 안전성 인증마크 운영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현장 점검, 테마 검사 등 취약점 보완 조치에 나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집회 브랜드
뭉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친환경 K배터리, 美·유럽서 승기 굳힌다

EU, 제조·판매 등 환경기준 강화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드라이브
LG·SK, 지속가능한 생산망 구축
능장 대처 중국보다 유리한 고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정상을 두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기술력과 지속가능성이 배터리 산업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른 가운데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앞세워 중국 기업과 힘을 겨룬다는 계획이다.
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EU)과 미국이 내년 과감한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EU는 배터리 제조는 물론 판매를 포함한 전 과정의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 배터리의 타입과 상관없이 역내에 제조와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정도 △유해물질 배출 △리사이클 수준 △원재료 구입 시의 도덕적 기준 이행까지 기준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같은 배터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국내 배터리 기업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환경 측면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중국 기업은 고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당시 LG화학) '환경과 사회를 위한 혁신적이며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자원 선순환 활동 △생태계 보호 △책임 있는 공급망 개발·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배터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등 자원 순환 고리 구축, 코발트 등 배터리 주요 원재료 공급망 외부 실사 등

공급망 투명성 및 추적성을 강화한다.

SK이노베이션도 필요한 광물을 윤리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책임 있는 광물 공급 연합'(RMI)에 가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산 및 판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배터리 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가 모두 EU에서 활발하게 증설을 하고 있다"라며 "엄격한 제조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원가로 EU에 수출하려는 중국업체들에는 장벽이 될 것이고, EU 내에서의 경쟁의 기준이 품질과 친환경 제조공법 등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역시 최근 환경을 고려한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위기 요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기차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3월부터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위 자리를 수성해왔던 LG에너지솔루션은 1~9월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CATL에 밀려 2위에 그쳤다. CATL은 총 19.2GWh(기가와트시)로, LG에너지솔루션 18.9GWh를 근소하게 앞섰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5.1GWh(6.2%), 4.6GWh(5.5%)로 각각 4위, 5위 수준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제네시스가 출범 5년 만에 국내 연간 판매량 10만 대 달성을 눈앞에 뒀다. 왼쪽부터 제네시스 GV80, G80, G90, G70.

사진제공 현대차

제네시스 내수 10만 '눈앞' ...정의선 고급차 전략 결실

11월 누적 9.6만대 고급차 1위
코로나에도 작년보다 84% 증가
국산차 18년 만에 160만대 전망

"현대자동차그룹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내실을 쌓아 세계 고급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이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식 무대에 올라 직접 밝힌 포부다.

정 회장이 제네시스를 앞세워 야심 차게 추진한 고급화 전략은 브랜드 출범 5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세단부터 SUV를 아우르는 제품군을 갖췄고, 고급 수입차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했

다. 해외에서 브랜드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다.

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출범 5년 만에 국내에서 연간 판매량 10만 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G70, G80, G90, GV80 등 제네시스 제품군은 누적 9만6084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2096대)보다 84% 늘어난 수치다.

제네시스는 정 회장이 직접 기획과 인사 영입, 출범 전 과정을 챙겨 탄생한 브랜드다. 급성장 중인 고급차 시장에 대응해야 현대·기아차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범 당시 세단 2종(G80, G90)에 불과했던 제네시스의 제품군은 스포츠 세단 G

70, 첫 SUV인 GV80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갖췄다. 이달에는 중형 SUV인 GV70이 합류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전기차 모델도 출시한다.

제네시스 판매량은 브랜드 출범 이듬해(2016년) 6만6029대를 시작으로 △2017년 5만6316대 △2018년 6만1345대 △2019년 5만6801대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했다. 그러다 올해에는 1월에 GV80, 3월에 새로운 디자인을 갖춘 3세대 G80을 선보이며 급격한 판매 증가를 거뒀다.

국내의 고급차 시장에서의 입지도 차츰 높여왔다. 제네시스는 올해 7월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까지 내수에서 9만6084대를 팔며

메르세데스-벤츠(6만7333대)와 BMW(5만2644대) 등을 제쳤다.

제네시스 약진에 힘입어 올해 1~11월 국내 완성차 5개의 내수 판매는 총 147만 3973대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138만 8327대)보다 6.2% 증가한 수준. 올해 국산차 판매는 2002년(162만868대) 이후 18년만에 16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이달 도심형 SUV GV70을, 내년에는 전기차까지 선보이며 브랜드 재도약에 나선다. GV70은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역동성을 극대화해 더 젊은 층의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내년에 선보일 전기차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도 활용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내년 수출 경기 개선 전망 석유제품·반도체·車 강세

국내 기업의 내년 1분기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9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12.1로 2017년 2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110을 웃돌며 수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EBSI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는 뜻이다.

특히, △석유제품(146.0) △반도체(123.6) △생활용품(12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17.4) 등이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지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이들 품목을 포함해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의 지수가 100을 웃돌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회복 기대감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전기·전자제품(88.8) △농수산물(90.8) △가전(91.9) 등은 수출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욱 기자 woogi@



브라질 최대 라이프스타일 전시 'LG 올레드 갤러리 TV' 등 소개

LG전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라이프스타일 전시회 카사코르에 참가해 LG 올레드 갤러리 TV를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카사코르는 1987년 시작돼 올해 34주년을 맞은 중남미 최대 규모 라이프스타일 전시회다. 건축, 디자인,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는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규모 전시관을 운영하는 대신 상파울루 시내 20여 곳에 마련된 전시 컨테이너에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조성했다. LG전자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공원인 이바라푸에라공원 인근에 전시 컨테이너를 마련했다. LG전자는 TV 전체가 벽에 밀착하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LG 올레드 갤러리 TV를 비롯해 인공지능 DD(다이렉트 드라이브) 세탁기, 인스타뷰 냉장고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과 갤러리 디자인 사운드 바, 엑스뷰 고 스피커도 전시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조선업계 한 달 새 '6조 수주' 뒷심에도 올 목표치 절반 그쳐

상반기 부진 만회 어려워
삼성중 49% 대우조선 56% 수주
일각선 '침체에도 선방'

조선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탓에 수주 가뭄을 겪고 있다. 한 달 사이 조선 3사가 6조 원을 수주했음에도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지난 일주일 사이 약 6000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최근 한 달 사이 수주금액도 6조 원 이상이다.

지난 3일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000억 원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을 수

주했고,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3척을 2820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2062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달에는 조선 3사의 대형 수주가 두드러졌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3일 2조8000억 원 규모의 선박 블록과 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어 '짜깁'을 터뜨렸다. 한국조선해양은 9857억 원 상당의 VLCC 10척을, 대우조선해양도 컨테이너선 6척을 7226억 원에 수주했다.

연말 뒷심을 발휘한 반면 이들 조선 3사의 수주성과는 애초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쳐있다.

이날까지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목표 수주액 110억 달러 중 65억6000만 달러를 수주해 성과는 약 59.6%에 그쳤다. 삼성중공업도 목표치(84억 달러)의 약

48.7%에 해당하는 40억 달러를 수주하는데 머물렀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목표로 잡은 72억1000만 달러 가운데 40억 6000만 달러를 수주하는 데 그쳐 목표 대비 약 56.3%를 힘겹게 달성한 상태다. 9월까지 조선 3사의 수주액은 연간 목표치의 30% 수준에도 못 미쳤던 바 있다.

반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폭감한 것을 고려하면 일각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주가 부진해 수주 잔량이 줄어들던 상황에서 국내 조선 3사가 일감을 서둘러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 한국 조선업 전체 수주잔량은 약 1.5년 치 일감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일감 부족이 우려됐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를 봐도 9월 누계 기준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975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작년 같은 기간(2003만 CGT)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업황이 침체해 있다 보니 최대한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막판 스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목표 수주액 달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조선업은 고정비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 지속을 위해 수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수주 계약 중 옵션이 포함된 계약들이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조선 3사가 62억 달러 상당의 건조의향서(LOI)·옵션 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주혜 기자 winjh@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즐거운 일 문화’ 만들 것”

인터뷰 조민희 로켓펀치 대표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 서비스 ‘로켓펀치’ 年 370만 사용
올해 엔스파이어와 합병... 분산 오피스 ‘집무실’ 확대 계획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일’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일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싶다.”

조민희 로켓펀치 대표를 ‘집무실’ 서울 대입구점에서 만났다.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표방하는 로켓펀치는 2013년부터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스타트업의 스타트업’이다. 연간 370만 명 규모의 순사용자를 보유하는 등 몸집도 불렀다.

조 대표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범용적으로는 새 시대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근 일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그의 지향점도 함께 변하고 있다.

그는 “다가오는 시대엔 사람들이 더는 하나의 직업만을 갖고 살 수 없다고 생각

한다”며 “직업이나 자금 전환이 잦아지는 만큼, 직업 정보를 지속해서 얻어야 하는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채용 시장에서 공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이들도 변하고 있는데 로켓펀치의 경우 실명 기반 네트워크형 플랫폼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진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근무 등으로 근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를 위한 새로운 환경을 갖춰야겠다는 판단에서다.

조 대표는 “교육 등을 플랫폼과 연계한 링크드인을 벤치마킹해 일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로켓펀치 플랫폼에 붙이는 것이 원래부터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켓펀치는 출범 초기부터 100% 원격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온라인을 바



조민희 로켓펀치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집무실·로켓펀치 플랫폼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탕으로 성장한, 오프라인 공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회사였다”며 “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찾던 중 엔스파이어를 만나게 됐다”고 돌아봤다.

엔스파이어는 이미 2018년부터 ‘집무

실’이란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정비하는 중이었다. 일과 공간이란 두 키워드가 맞닿는 셈이다. 로켓펀치와 엔스파이어 합병이 단 몇 시간 만에 결정된 이유다.

조대표는 “논의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부

터 합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로켓펀치는 올해 5월 브랜딩·공간 전문 기업 엔스파이어와 합병하고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동과 서울대입구에 두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추가 개점도 계획 중이다.

조 대표는 집무실 공간을 ‘오프라인 네트워크’ 공간으로 보고 있다. 채용 정보 플랫폼인 로켓펀치처럼 집무실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일해야만 하는 직군은 많이 잡아봐야 50%에 불과하다”며 “유연한 근무환경의 시대가 도래했고, 모두가 사무실에서 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지금이 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집무실과 로켓펀치란 플랫폼을 통해 조대표는 ‘일’ 문화를 바꿔 나가려 한다. 그는 창업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회사에 투영한다고 봤다. 그의 경우 이 욕망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조 대표는 “일의 본질은 자아실현이 아닐까 한다”고 되물었다. 이어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희망을 느끼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걷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다원 기자 leedw@

KT, 우수협력사 해외판로 개척 지원

고려오토론·우리로 등 4개社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지원
전시회 부스에 제품 실물 전시
온라인 화상 방식 수출 상담도



KT가 'GITEEX2020'에 마련한 부스 조감도.

KT가 코로나19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 유명 IT 전시행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KT는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IT 전시회인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2020’에 고려오토론(광분배기), 우리로(양자암호소자), 이노피아테크(UHD STB), 호성테크닉스(동축커넥터) 등 4개 우수 협력사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GITEEX 2020은 매년 4000개 이상의 기업과 14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초대형 전시회다. 이번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상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KT는 전시회 현장에 우수 협력사 제품을 실물로 전시하고 수출 상담은 한국과 두바이 현지를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지원 체계를 준비했다. 현지 바이어를 위해 수출 전문 통역사와 아랍어 브로슈어도 준비해 협력사가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그동안 KT는 우리나라 통신 강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해서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협력사의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더했다. 그 결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KT SCM전략실장 박종열 전무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사의 해외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지만, 온·오프라인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GITEEX 2020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내 강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승실대·인하대 등 5개교에 ‘중소기업 계약학과’ 생긴다

중기부, 주관대학 선정... ‘AI·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인공지능(AI)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 및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 5곳을 선정했다.

정부의 신기술 인력양성 정책에 발맞춰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승실대, 건양대, 경희대 등 3개 대학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명지대, 인하대 등 2개 대학으로 총 5개 대학이다. 이로써 전국에 49개 대학 70개의 계약학과에서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신규 선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 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에는 학과 운영비(학기당 3500만 원)가 지급된다. 참여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준 등록금(290만 원)의 6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신규로 선정된 5개 대학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요 운영계획으로 승실대학교(AI·SW융합학과)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금융, 게임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공지능(AI·SW) 융합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건양대학교(의료인공지능학과)는 의과대학, 의료공과대 등 학제 간 융복합 기반의 의료융합 중심교육을 통해 차세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한 의료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희대학교(AI기술경영학과)는 AI를 경영환경에 접목해 인공지능 환경구축부터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과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명지대학교(반도체장비공학과)는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등의 전공기반 교육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결합한 융합 교육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인하대학교(스마트소재부품공학과)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초가 되는 금속재료(뿌리기술 등) 기술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소재부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ADR 제도, 소송보다 비용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가능”

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7-8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ADR 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단시간 내 무한대로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가 이뤄지는 주요지식재산권(상표, 저작권 등)의 특성상 소송 절차보다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ADR 제도’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지식재산 분쟁 유형의 특수성에 따른 조정유형 및 조정기법 △2020년 신규도입제도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의 이론 교육 △조정 의 교착상태 진단 및 해결방법 △조정유형 및 조정인의 행위규범 △설득전략 및 설득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기 교육 등으

로 구성됐다. 세미나는 상시 운영기관의 분쟁조정 담당자들이 참여하며 세미나 내용은 유튜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정상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 전담 부서를 갖추기 어려운 벤처, 중소기업 분쟁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관계자들의 조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중진공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특성화고편 진행

18일까지... 내년부터 상시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KOSME 내일(愛)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네 번째 테마인 특성화고 일자리 구인·구직 매칭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KOSME 내일(愛)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채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테마를 정해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10월부터 △청년 디지

털 일자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일자리 △병역지정업체 일자리 등 테마별 릴레이 방식으로 분야별 특화된 구인·구직 수요를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마지막인 네 번째 테마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을 위한 특성화고 일자리 분야다. 박람회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박람회 기간 상시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대형마트 주차장서 풋살... 언택트 시대 공간 활용법

홈플러스 14개 점포 풋살장 조성
롯데마트 부산점 BMW 수리센터
물류 공간 만들고 개인창고 대여
온라인 주문 늘며 공간 효율화 나서

온라인 사업에 힘을 주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빈 주차장을 활용해 점포 공간 효율화에 나섰다. 벤츠와 BMW 경정비 센터를 유치하는가 하면 현대차 시승센터를 마련해 집객을 유도한다. 불거리와 체험형 매장으로 거듭나며 옥상 주차장을 풋살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눈에 띈다.

◇풋살장으로 변신한 홈플러스 주차장=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달 영동포점 지하 2층에 메르세데스-벤츠 수리센터를 입점시켰다. 공식 딜러 KCC 오토가 운영하는 수리센터로 정기 점검과 타이어 교환을 전문으로 'Drop&Shop' 서비스를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자동차정비 전문업체 오토아시아를 입점시켜 운영하지만 벤츠 등 자동차 브랜드의 공식 수리센터를 점포 내에 입점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회사와 협업으로는 두 번째다. 홈플러스는 6월 경기도 안산고잔점 매장 5층에 '현대자동차 시승센터 안산고잔점'을 오픈한 바 있다. 이 센터는 직원이 상주해 고객을 맞이하는 사무실 공간은 물론 해당 층의 고객 주차장에 현대자동차의 전차량을 준비해 바로 시승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홈플러스의 똑똑한 주차장 활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옥상 주차장을 활용한 풋살장이다. 이 회사는 HM스포츠에 옥상 주차공간을 임대해 현대 동대문점과 서수원점, 시흥점, 안산 고잔점, 인천 청라점, 일산점, 대전 탄방점, 동대문점, 부산 가야점, 부산 북구점, 울산 남구점, 울산 북구점, 창원점, 전주 완산점 등 14곳의 점포에서 옥상을 활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서수원점 풋살파크.

사진제공홈플러스

◇롯데마트엔 BMW 수리센터 입점=롯데마트는 지난해 7월 BMW 코리아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빠른 경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P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IT 서비스는 자동차 경주 시차량이 정차해 타이어 교체 등 빠른 정비 받고 경주에 나가는 개념을 BMW/MINI 서비스에도 적용한 것이다.

현재 롯데마트 부산점과 사상점 2곳에서 운영 중으로 수년 내에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 50여 개의 롯데마트 지점을 대상으로 BMW·MINI PIT 서비스센터 입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역시 BMW그룹 코리아 및 도이치모터스와 협력해 지난 10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잠실점에서 BMW 차량을 소지한 고객(MVG)을 대상으로 경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선보인다.

이마트는 올해 3월 정관에 '전기차충전 사업을 포함한 전기 신사업 및 전기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고 주차장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119개 점포 주차장에서 급속 충전기 375기와 완속 충전기 155기 등 총 530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고객 편의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언택트 추세에 따라 온라인 주문 비중이 커지고 있어 오프라인 매장 주차장을 활용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남는 공간을 수익 사업으로 활용하고 고객 발견도 이끌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풀필먼트 시설에 참고사업도 나서=홈플러스는 또다른 빈 공간 활용법으로 지난해부터 점포 공간 일부에 풀필먼트(FC)를 만들어 온라인 사업 지원 공간으로 쓰고 있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고객 주문에 맞춰 상품을 분류 및 포장·배송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 계산점과 안양점과 수원 원천점 등 3곳의 FC를 운영 중인 홈플러스는 수년 내 10개 점포에 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창고 서비스 '더 스토리지'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점포 내 공간을 대여해 개인 창고로 활용하는 수익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일산점에 첫 선을 보인 '더 스토리지'는 최근 부산 서면점과 수원 원천점에도 도입했다. 특히 일산점은 이용률이 85%에 육박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국내 유통사와 달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점포로 운영하다 보니 빈 공간이 많다"면서 "점포 공간 활용 등 오프라인만의 강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건강 챙기자” 샐러드 찾는 ‘확찐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샐러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배달 음식·가정 간편식(HMR) 등으로 한기를 때우느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외부활동이 줄어 단기간에 살이 급격하게 쯤 이르바 확



기포케, 그릴드 치킨포케, 그린 샐러드, 단호박고구마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채산당은 연내 20호점으로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문을 연 마포 합정역 인근의 '크리스피 프레시(crispyfresh)'(사진)는 동원그룹 각 계열사가 직접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한 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샐러드 전문 카페다. 동원산업이 어획한 프리미엄 참치와 신선하고 품질 좋은 노르웨이산 연어를 비롯해 동원그룹의 채소 브랜드 '정미채'와 국내 1등 조미식품 제조업체 동원푸드, 삼조셀텍의 차별화된 소스 등 동원그룹의 식품 기술력이 총집약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샐러드 완제품 시장 규모는 1000억 원대에 이른다. 시장이 커지자 서울 도심에 샐러드 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SPC삼립은 이달 초 샐러드 전문 매장 '피그인더가든'(PIGINTHEGARDEN) 광화문점을 열었다. 피그인더가든은 2017년 여의도

올 샐러드 시장 규모 1000억원대 SPC '피그인더가든' 매장 늘려 동원 '크리스피 프레시' 배달 나서

강남점, 판교점, 코엑스점에 이어 5번째 매장이다. 피그인더가든에서 매일 팔리는 샐러드만 평균 약 40만 개다. 매출도 11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SPC삼립 관계자는 "피그인더가든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편의점 등에 납품되는 샐러드를 생산하는 충북 청주공장 SPC프레쉬푸드팩토리의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라면서 "생산하는 샐러드 제품도 초기 200여 종에서 최근 350여 종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샤브샤브'를 주력 메뉴로 내세우던 채산당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도시락&샐러드 브랜드 '채산당 도시락&샐러드' 1호점을 열고 샐러드·도시락 사업에 진출했다. 도시락과 함께 다이어트 건강식단으로 제격인 샐러드&포케 7종(하와이안 연어포케, 스위트칠리 새우포케, 오리엔탈 불고

산에 힘입어 배달·구독서비스에도 나섰다. 동원푸드도 배달 전문 의오프라인매장 '크리스피 프레시 딜리버리' 서초

점을 지난 11월 열고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한 딜리버리 전문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정점도 인근 지역에 배달을 시작했다. 지난달 말 포케·샐러드 전문 브랜드 '비비드 팜'을 더반찬&마켓컬리에 입점시키며 온라인 사업에도 공들이고 있다.

샐러드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도 대거 늘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더플레이스'는 서울스퀘어점, 합정점점 두 곳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정기구독 서비스를 코엑스몰점, 여의도IFC몰점, 영등포타임스퀘어점 등 5개점으로 확대했다. CJ푸드빌 측은 구독료를 내면 한 달 동안 셰프가 만든 샐러드 6종을 정상가 대비 최대 30% 할인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데다, 샐러드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로 떠오르면서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조선호텔 짜장을 집에서

6일 이마트 성수점 밀키트 매장서 모델들이 '조선호텔 유니짜장', '조선호텔 삼선짜장' 밀키트를 소개하고 있다. 조선호텔 유니짜장, 삼선짜장 밀키트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하는 '호경전'의 대표 메뉴를 재현한 상품으로, 앞서 SSG닷컴에서 10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자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에 나섰다. 조선호텔 유니짜장(2인)은 7900원, 조선호텔 삼선짜장(2인)은 1만2900원에 판매한다. 사진제공 신세계조선호텔

크리스마스 남친 선물 고민된다면...

롯데백 남성 편집숍 '스마트'

롯데백화점의 프리미엄 남성 잡화 편집숍 '스마트(SMALT)'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기 아이템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명품 남성 잡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1년여 준비 끝에 지난 10월 구리점에 '스마트'를 오픈했다. 스마트에서는 구찌, 보테가베네타, 톰브라운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헤이, 아르네 야콥

슨 등 나만의 홈오피스를 꾸밀 수 있는 리빙 소품 및 문구 등 50여 개 브랜드의 500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스마트'는 이전 매장의 전년 매출 대비 90% 이상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구매 고객 분석 결과 46%가 구리점을 처음 방문한 고객으로 신규 고객 유입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 고객의 67%가 여성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이성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기 위한 여성 고객이 많다는 의미로, 실제 내점 고객의 절반 정도가 남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백화점 스마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선물하기 좋은 인기 아이템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스마트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상품으로는 노모스 탕겐데 38위치 269만원, 존스톤 오브 엘긴 머플러 38만 9000원, 톰브라운 카드지갑 40만 9000원 이상이다. 이 외에도 홈오피스 디자인 상품인 루미오 미니 조명 25만 원, 오토 목재 펜슬 1만 원 등도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KGC인삼공사, 백신연구소와 면역증강제 개발 MOU

KGC인삼공사는 국제백신연구소와 면역증강제 개발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체결식은 서울대학교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제롬 김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재수 KGC인삼공사 사장, 박채규 R&D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정관장 홍삼을 활용해 백신 연구에 필요한 면역증강제 개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면역증강제란 항원의 면역반응을 증강하는 물질로 백신에 함유되면 소량의 항원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 백신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이번 MOU 체결로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에 함유된 12종의 진세노사이드를 공급하고, 국제백신연구소는 진세노사이드의 면역증강제의 효능을 연구해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채규 KGC인삼공사 R&D 본부장은



"이번 MOU를 통해 정관장 홍삼 성분을 백신에 활용한다면 홍삼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 연구와 개발, 보급에 전념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최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 백신 개발 회사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코스피 상승장 이어갈 것... 경기 민감株 주목”

리서치센터장 증시 분석

증권가, 내년 목표치 최고 3080
백신 보급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증장기적으로 혁신 성장株에 관심
단기 급등에 쇼크르기 장세 올수도

코로나19로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았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전으로 돌아왔다. 기술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정보기술(IT)·제조 등이 섞여 있는 한국 증시는 2700선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말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최고 3000선을 찍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다. 일본·대만·중국 증시도 비슷한 모습이다. 주요 경제 지표와 미국 부양책 협상 타결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이 증시 편이다. 전문가들은 단지, 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확연한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이 있어서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아직은 각국의 이례적 부양책과 돈 풀기로 촉발된 '유동성 장세'의 덕이 크다고 설명한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이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기업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이 노출되면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됐다 는 것이다.

빅5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시 전망

| 센터장 | NH투자증권 | 이창목 센터장 | KB증권 | 신동준 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 서철수 센터장 | 삼성증권 | 오현석 센터장 | 한국투자증권 | 윤희도 센터장 |
|-------------|--|---|---|--|---|---|---|--|--|--|
| 증시전망 | - 적어도 내년 2분기 글로벌 금리 오를 때까지는 좋아 보인다 | - 연말 강세 기조 유지되며, 2021년에도 강세 흐름 이어갈 것 - 달러화 약세 추가 진행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구조적 유입 기대 | - 연말 강세 기조 유지되며, 2021년에도 강세 흐름 이어갈 것 - 달러화 약세 추가 진행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구조적 유입 기대 | - 외국인, 개인 수급 여건 양호한 점 -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개선(기저효과) 기대 | - 최근의 강세장 지속 가능성 - 기본적으로 어닝 사이클이 회복 국면인 데다가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이어지고 국내 머니부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 외국인들이 비중을 채우면서 신고가 나오는 상황으로 내년도 좋아질 것이라 기대로 선취 | - 백신 보급, 경제 재개로 인해 내년 초까지 무난한 상승 흐름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유동성 여건은 매우 풍부 | - 내년도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와 이와 연동된 외국인들의 매수전략 | - 미중 무역전쟁 양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은 수혜 - 중국과 한국 중 투자비중 조정 가능성 | - 미중 무역전쟁 양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은 수혜 - 중국과 한국 중 투자비중 조정 가능성 |
| 상승요인 | - 풍부한 유동성의 힘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로 기인 -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자금유입과 결부 | - 외국인, 개인 수급 여건 양호한 점 -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개선(기저효과) 기대 | - 외국인, 개인 수급 여건 양호한 점 -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 개선(기저효과) 기대 | -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 글로벌 풍부한 유동성과 원화 강세 따른 외인 매수 - 자산구성의 구조적 변화(대안 부재 따른 주식 확대) | - 백신 보급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 인플레이션 조짐 가시화 시 연준 스탠스 변화에 대한 우려 - 미국 내 분열·갈등을 풀리기 위한 미중 분쟁 자극 위험성 | -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 - 올겨울 코로나19가 상상 이상으로 확산세 땀 예상보다 경기회복 못 미칠 수도 | -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 - 올겨울 코로나19가 상상 이상으로 확산세 땀 예상보다 경기회복 못 미칠 수도 | - 경기회복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통화긴축 이슈에는 유의 -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높아질 수 있음 | - 경기회복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통화긴축 이슈에는 유의 -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높아질 수 있음 | |
| 하방요인 |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크로적 요소 - 미국 추가부양책 결렬될 가능성 | - 2~3월경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가능성 거론될 수 있음 - 3월 중순경 공매도 재개되는 점도 증시에 부담 요인 | - 2~3월경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가능성 거론될 수 있음 - 3월 중순경 공매도 재개되는 점도 증시에 부담 요인 | - 금리 및 추가 할인을 상승 가능성 - 인플레이션 조짐 가시화 시 연준 스탠스 변화에 대한 우려 - 미국 내 분열·갈등을 풀리기 위한 미중 분쟁 자극 위험성 | -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 - 올겨울 코로나19가 상상 이상으로 확산세 땀 예상보다 경기회복 못 미칠 수도 | -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 - 올겨울 코로나19가 상상 이상으로 확산세 땀 예상보다 경기회복 못 미칠 수도 | - 경기회복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통화긴축 이슈에는 유의 -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높아질 수 있음 | - 경기회복 속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통화긴축 이슈에는 유의 -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높아질 수 있음 | | |
| 투자요망 업종(종목) | - 경기민감주, 가치주, 반도체, 운송, 철강, 화학 등 | - 1분기까지 화학, IT부품 등 중간재, 2분기부터는 성장주(바이오, IT, 친환경) 유망 | - 1분기까지 화학, IT부품 등 중간재, 2분기부터는 성장주(바이오, IT, 친환경) 유망 | - 경기민감업종과 성장주(중장기), 클린 에너지 등 | - IT, 자동차, 소재 등 경기민감주 | - IT, 자동차, 소재 등 경기민감주 | - 반도체(삼성전자), 철강(POSCO), 2차전지(LG화학) 등 | - 반도체(삼성전자), 철강(POSCO), 2차전지(LG화학) 등 | | |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기준 코스피 목표치를 2800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크레디트스위스도 같은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경제 지표가 대내외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내년에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무라 2850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내년 코스피 목표치는 최저 2630(DB금융투자)부터 최고 3080(대신증권)까지다. 가장 많이 제시된 목표치는 2700~2900선이다. 4일 코스피는 2731.45로 이미 목표가를 넘어섰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풍부한 유동성의 힘이다"면서 "특히 한국 시장은 시총

이 가장 큰 반도체가 지수를 더 많이 끌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쇼크르기 장세가 상승장에서 끼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비중을 채우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내년도 좋아질 것이라 기대로 선취해하는 패턴의 연장선에서 코스피 2700 돌파가 됐다"고 보며 "내년 1월 19일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달러 약세, 외국인 이머징 마켓 매수전략을 꼽았다.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2021년에도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개인들의 주

식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상승장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인 지난달 4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6조2396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이끌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기 재개로 인해 내년 초까지 무난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유동성 여건은 매우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센터장은 "2013년, 2018년과 비슷한 통화 긴축 이슈에는 유의해야 한다"며 "경기회복 속도가 가파라 진단되면 높아질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은 하방압력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두드러질 유망 업종으로 경기 민감주를 들었다. 경기 사이클이 회복할 때 IT, 반도체, 자동차, 소재, 산업재 등의 긍정적 흐름을 예상했다. 종목 중에선 기업 활동 재개로 반도체 서버 수요가 회복되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이익 모멘텀이 지속되는 LG화학,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대한항공 등이 수혜주로 꼽혔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재고사이클과 실적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경기 민감 업종과 코로나 피해주들의 아웃포럼(평균수익률 상회)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10배 레버리지' CFD 조세 회피 논란

(주식차액결제서비스)

실제 투자상품 보유하지 않아
총 3% 수준의 수수료만 내면
주식 관련 양도차익은 비과세

CFD 거래구조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하면 외국계 증권사(Prime Broker)를 통해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식차액결제서비스(CFD)가 큰손 '서학개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CFD를 이용하면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관련 양도차익 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7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 CFD를 취급하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

식을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해외주식 CFD의 경우 숏(매도)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식시장은 대차 시장이 잘 형성되어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쉽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거래 당사자는 외국계 증권사로 찍힌다. 전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하면 프라이머리 프로커인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CS증권, 노무라, 골드만삭스 등이 주요 프라이머리프로커로 활동하고 있

다.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공시에 CS증권이 나온 것도 CFD 거래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CFD를 이용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손익통산결과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주식에서 나온 배당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 국내외 주식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투자자의 경우 총 3% 수준의 CFD 수수료만 내면 이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무상증자, 현금배당 등 모든 권리는 누릴 수 있다. 손염기 기자 eoml@

AI가 굴리는 액티브 ETF, 수익률 아쉽네

9월 상장 2종 15% 내외... 코스피 지수 상승률 못미쳐

인공지능(AI)이 굴린다는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혁신기술테마액티브'는 설정일인 지난 9월 29일 종가 대비 15.84% 오른 1만1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도 14.92% 상승한 1만1590원을 기록했다. 두 상품보다 두 자릿수의 양호한 성적이지만 비교지수(BM, 벤치마크)인 코스피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아쉬운 성적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17.33%이었다. 지난 9월 29일 동시 상장한 이들 ETF는 AI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없이는 액티브 ETF가 제대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형 액티브 ETF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품 운용이 더욱 '액티브'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TF는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매일 자산구성내역(PDF·Portfolio Deposit File)을 공개해야 한다. 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투자 종목과 수량 등 투자 전략이 매일 공개되면 투자자들이 이를 복제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채권형 액티브 ETF가 도입된 이후 3년 가까이 주식형 액티브 ETF가 출범하지 못했던 것도, 처음 국내에 출시된 주식형 액티브 ETF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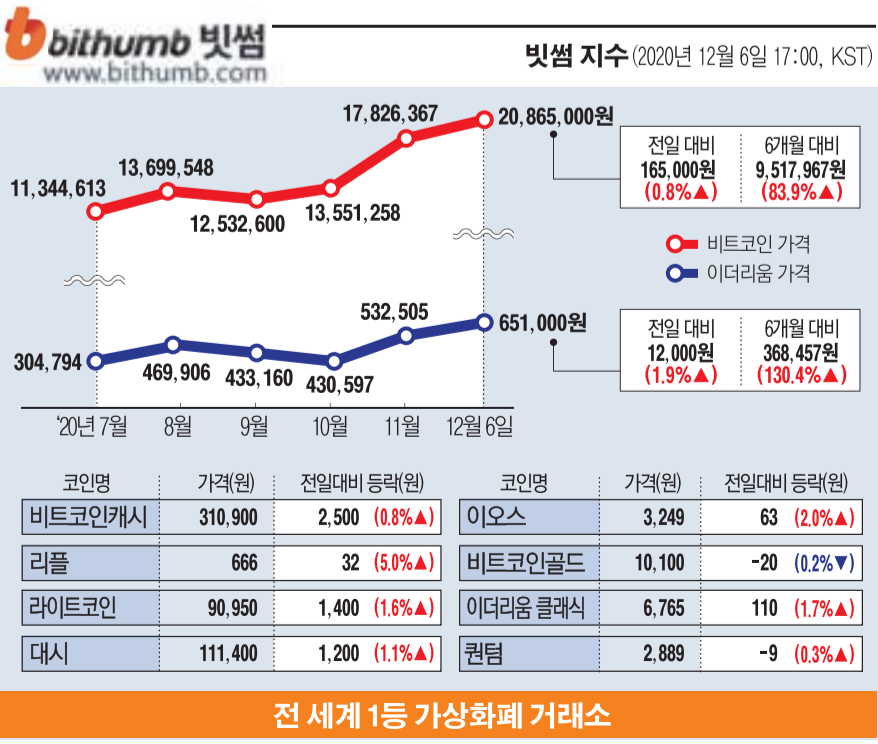
1100선 무너진 원달러 환율... 서학개미 '긴장'

미국 주식 원화 환산가치 떨어져 평가손실 발생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이 붕괴하면서 '서학개미' (해외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달러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타격과 주식 손실이 예상돼 서다. 반면 원화 강세를 '기회'로 보면서 환전·매수 적기를 재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지난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증가보다 14.9원 내린 달러당 1082.1원에 장을 마감했다. 서학개미들은 당장 평가손실을 걱정해

야 할 처지다. 서학개미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미국주식에 구성돼 있다. 한국에타결제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320억492만달러(약 35조 원)로, 작년 말 84억1565만 달러(약 9조 원) 대비 280% 증가했다. 미국 주식 보관잔액은 2017년 말 42억 달러에서 2018년 말 46억 달러, 지난해 84억 달러로 오르더니 올해는 320억 달러까지 경종 뛰었다.

흔히 달러 약세가 지속하면 보유한 미국주식의 원화 환산 가치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달러화 약세(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주식 가치가 오르더라도 달러화를 원화로 바꿀 경우, 손에 쥐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는 배가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내년까지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돈을 풀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선방해 원화 강세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규제→풍선→규제→상승... '부산 불장' 울산·창원도 들쭉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後 오름세 꺾였다 다시 상승세 경남 인근 지역도 풍선효과 더 확대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에 규제 '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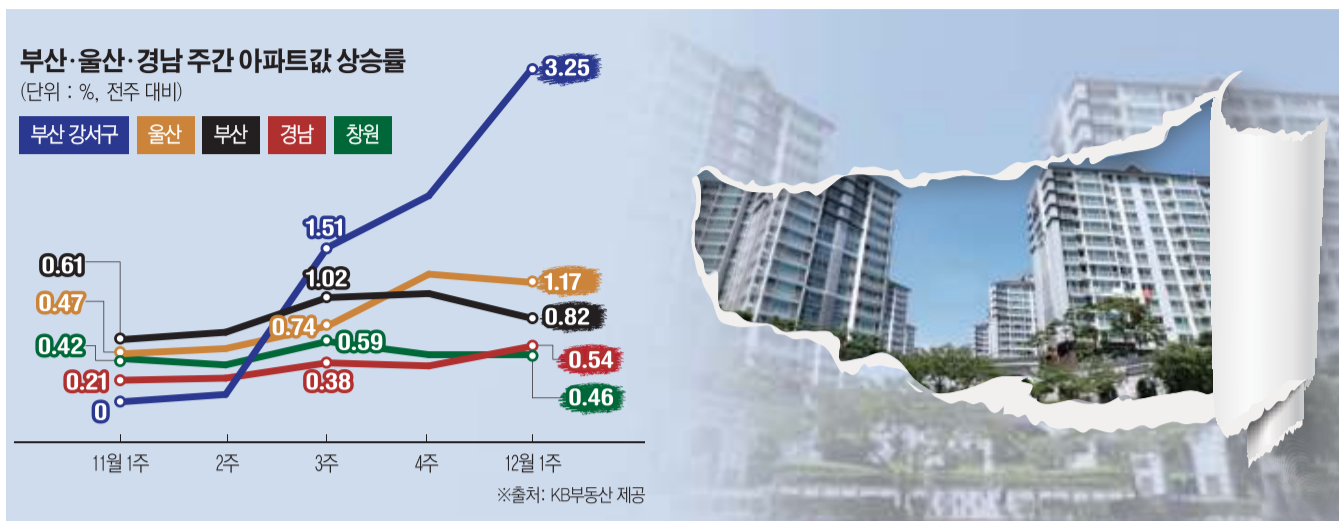
정부가 11·19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의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었지만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부산 진구나 강서구 등은 '풍선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지금 부산에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매매시장이 동시에 들쭉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풍선효과는 부산을 넘어 울산과 창원 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6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부산 강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새 3.25% 급등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비규제지역인 강서구는 지난달 초까지 주간아파트 상승률이 0%대의 보합세를 이어가던 곳이다. 11·19 대책 직후 나타난 풍선효과로 지난달 23일 갑자기 2.02% 치솟은 데 이어 주간 상승폭이 3%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서구 명지동 '롯데캐슬' 전용면적 84.93㎡형은 지난달 28일 4억7000만 원에 팔렸다. 동일 평형은 11·19 대책이 나오기 전인 10월 21일 2억4000만 원에 매매 거래된 바 있다. 대책 전후로 한 달여 만에 집값이 1억 6000만 원 넘게 폭등한 것이다. 이 아파트



의 전용 126.77㎡형 매매가도 10월 29일 3억7500만 원에서 지난달 24일 5억 원으로 한 달 새 1억2500만 원 치솟았다.

강서구 J공인 관계자는 "11월 들어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집값 과열 지역들이 조만간 규제로 묶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동네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해 롯데캐슬 84㎡형 실거래가가 2억 원 중반대에서 3억 원 초반대로 뛰었다"며 "실제 11·19 대책으로 부산 주요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투자 수요가 이곳으로 몰리면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4억 원을 넘어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비규제지역이 풍선효과로 순식간에 '불장' (과열 시장)으로 변했지만, 그렇다고 규제지역이 잠잠해진 것도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후 주택시장이 다소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집값이 들쭉이는 모습이

다. 11·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는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이 규제 직전 1.91%에서 직후 1.46%로 조금 줄긴 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난 이달 첫째 주 1.69%로 다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동부센트레빌' 전용 84.9㎡형은 지난달 28일 6억30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동일 평형의 직전 실거래가는 5억4700만 원 (10월 31일 거래)에서 8000만 원 넘게 오른 가격이다.

해운대구 U공인 관계자는 "우동과 중동 등 전용 84㎡형 기준 10억 원이 넘는 고가 단지들은 규제 이후 오름세가 꺾였지만 그동안 팔린 시세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지는 않는다"면서 "규제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동(洞)들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불장은 인근의 울산과 창원 등지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울산 아파트값은 1.17% 상승했다. 남구 (1.84%)와 중구

(1.01%), 북구(0.93%)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그동안 마이너스(-) 내지는 0%대의 변동률을 이어가던 동구도 0.62% 뛰었다.

경남은 최근 2주간 상승폭이 0.35%에서 0.54%로 확대됐다. 최근 들어 0.4~0.5%대의 상승률을 나타낸 창원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 전용 110㎡형은 이달 3일 14억3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이파크' 전용 84.73㎡형도 이달 1일 9억5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다시 썼다.

광역시 도시와공간 대표는 "지역별로 좋은 입지에 살고 싶은 신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특정을 지역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부정 청약·불법 전매... 아파트 분양 집중 단속

경찰, 오늘부터...범죄수익 환수

경찰청은 7일부터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2140명 중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관련 피의자는 절반에 가까운 46.8%(1002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전문 브로커나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 추적으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피의자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분당 느티마을 3·4단지 수직증축 2차 안전성 검토 못넘어 '재검토'

대부분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선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신도시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 집을 더 짓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느티마을 3·4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할 지,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평증축은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6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이달 초 느티마을 3·4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2차 안전성 검토 심사 결과 부결됐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과 1·2차 안전성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지에 따라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느티마을 3·4단지는 지난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교육환경 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리모델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히 느티마을 3·4단지는 2차 안전성 검토 단계 통과를 위해 '선제하(Preloading) 공법·층수를 올렸을 때 커지는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해 주는 기술'을 포기하고 기존의 건물 수직증축 보강 방식인 말뚝 방식으로 2차 안전성 검토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전경. 이투데이 DB

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증축 방식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수직증축 방식뿐 아니라 수평증축으로 방식 사업을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느티마을 3·4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수직증축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대부분은 수직증축을 포기하고 수평증축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와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가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으로 선회했고, 안양 평촌 목련2단지도 수평증축을 택했다.

수직증축 사업이 성사된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로 지난 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성지아파트는 이례적인 사례로 좁히며,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진행이 막힌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토를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고 안전성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금주의 분양캘린더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한동안 분양이 거의 없었던 서울에 공급이 예정돼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총 1만3227가구(일반분양 9838가구)가 분양을 나선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포레사인', 경기 오산시 원

동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경북 경산시 중산동 '중산자이'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4곳에서 발표된다.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 경기 안성시 공도읍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부산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남천역더퍼스트', 경기 고양시 덕은동 '호반써밋DMC힐즈',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하늘채스카이엔' 등에서 당첨자를 뽑는다. 정당계약은 9곳에서 이뤄진다. 경기 용

인시 고리동 '용인고림지구3차양우내안에더센트럴', 경기 파주시 당하동 '파주운정3A1',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 등에서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10곳에서 문을 연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힐스테이트도봉역엘가(오피스텔)', 경기 용인시 고리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반써밋그랜드마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첵' 등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 날짜 | 구분 | 시 | 구시군 | 읍면동 | 아파트명 | 날짜 | 구분 | 시 | 구시군 | 읍면동 | 아파트명 | | | |
|-----------|-----|-----------------------------|----------------------|-----------------------|-----------------------------|--------------------------|---------------------------|-----------------|---------------------|----------------------------|------------------------|------------------------|------------------------|------------------------------|
| 12/7 (월) | 접수 | 경기 | 고양시 | 덕은동 | 호반써밋DMC힐즈 2순위 | 12/10 (목) | 접수 | 경기 | 고양시 | 덕은동 |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2순위 | | | |
| | | | 화성시 | 남양읍 | 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4차숲속마을 1순위(기타지역) | | | | 군포시 | 당동 | DS더벨가 2순위 | | | |
| | 대전 | 중구 | 선화동 | 대전하늘채스카이엔 2순위 | 발표 | | 충북 | 진천군 | 진천읍 | 다산신도시참이름3단지(국민임대) (~12/12) | | | | |
| | 경기 | 고양시 | 지축동 | 고양지축S1(영구임대) (~12/10) | | | | | 안성시 | 원동 |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2순위 | | | |
| 12/8 (화) | 계약 | 경기 | 여주시 | 천송동 | 여주역스카이팰리스(~12/9) | 발표 | 충북 | 진천군 | 용인시 | 유방동 | 용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 2순위 | | | |
| | | | 화성시 | 영천동 | 화성동탄2A4-2(국민임대) (~12/11) | | | | 영동군 | 영동읍 | 카이저 | | | |
| | | | 서울 | 중랑구 | 신내동 | | | | 망우역신원아침도시 1순위(당해지역) | 계약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고양시 | 덕은동 |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순위(당해지역) | | | | 화성시 | | | | 봉담읍 | 화성봉담2A2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12/16) |
| 12/9 (수) | 접수 | 경기 | 군포시 | 당동 | DS더벨가 1순위(당해지역) | 발표 | 충북 | 진천군 | 관해원면 | 진천광혜원2(영구임대) | | | | |
| | | | 양평군 | 용문면 | 양평다문지구번도유보라아이비파크 1순위 | | | | 진천읍 |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티 | | | | |
| | | | 오산시 | 원동 |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1순위(당해지역) | | | | 계약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 용인시 | 유방동 | 용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 1순위(당해지역) | | | | | | | 화성시 | 봉담읍 | 화성봉담2A2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12/16) |
| 12/10 (목) | 접수 | 서울 | 망우동 | 서울양원S1(국민임대) (~12/11) | 발표 | 충북 | 진천군 | 관해원면 |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 | | | | |
| | | | 신내동 | 망우역신원아침도시 1순위(기타지역) | | | | 계약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 | 고양시 | 덕은동 | | | | | | | 덕은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1순위(기타지역) | 화성시 | 봉담읍 | 화성봉담2A2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12/16) |
| | | | 군포시 | 당동 | | | | DS더벨가 1순위(기타지역) | 계약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시흥시 | 장현동 | 시흥장현A9신호희망타운(공공분양) (~12/10) | 발표 | 충북 | 진천군 | 관해원면 |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 | | | | | | |
| 양평군 | 용문면 | 양평다문지구번도유보라아이비파크 2순위 | | | | 계약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 오산시 | 원동 | 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 1순위(기타지역) | 발표 | 충북 | 진천군 | | | | 관해원면 |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 | | | |
| 용인시 | 유방동 | 용인보평역서희스타힐스리버파크 1순위(기타지역) | | | | 계약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 전남 | 목포시 | 석현동 | 하당제일풍경채트럴퍼스트 2순위 | 발표 | 충북 | | | | 진천군 | 관해원면 | 진천광혜원2(국민임대) | | | |
| 인천 | 중구 | 운남동 | 운서역푸르지오더스카이(민간임대)A12 | | | 계약 | 경기 | 파주시 |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대구 | 북구 | 침산동 | 다산프리미얼스그릴3.0 | 계약 | 경기 | | |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12/10 (목) | 접수 | 서울 | 송파구 | | | 거여동 | 위례포레사인15단지(공공분양)A1-12 1순위 | 계약 | | 경기 | 파주시 | 당하동 | 파주운정3A1(국민임대) (~12/16) | |
| | | | 중랑구 | 신내동 | 망우역신원아침도시 2순위 | 위례포레사인17단지(공공분양)A1-5 1순위 | | | | | | | | |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정리할 필요 없다”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 기각 檢, 17년전 자료로 추정해야

수백억 원의 추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뇌물로 받은 액수 등 2205억 원을 추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추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전 씨가 314억 원만 내자 검찰은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003년 4월 전 씨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 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에어컨, 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품목을 적고 예금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씨의 재산목록을 2003년에 확인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며 재산명시를 재신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골프 회동과 1인당 20만 원이 넘는 호화 오찬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전 씨가 거액의 추정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이라며 “은닉한 차명재산 확인을 위해 재차 재산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전 씨가 17년 전 법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법을 통

해 차명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 전 씨가 애초의 재산명시 전서 이후에 새로 재산을 취득했는데 이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원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추정금 환수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 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 씨의 추정금 미납액은 991억 원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고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중용 기자 deep@

‘제야의 종’ 안친다

코로나 우려에 67년 만에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67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서울시는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다음해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해온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에 타종 영상을 제작한 뒤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초미세먼지 깔린 서울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6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7일에도 수도권·강원 영서·충청·대구·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秋·尹 ‘운명의 한 주’... 현재의 판단 변수로

〈징계위 효력정지 가처분〉

징계위 개최 연기될 수도 이용구 참석 공정성 논란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장외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예정대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처분 인용되면 징계위 무산될 수도=윤 총장은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회의 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

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현재 판단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즉시 항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사흘 만에 반복하며 맞불을 놔다.

현재가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위 개최는 무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처분 신청 재판은 법원보다 절차가 복잡해 10일 전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인용 사례도 드물어 윤 총장 측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아울러 윤 총장이 지적한 부분은 징계위원 상당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외부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법률적 실익보다 징계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용구 징계위 참석 공정성 논란=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 참석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던 이 차관은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약수인 것 같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 차관은 “대체로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방향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월성 원전 사건은 이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주목받게 했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인 백은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성장세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재하지 않으면 어떤 비용까지도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우와 맞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설계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직자들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그림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원을 10분 안에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돈을 다 잃어도 가슴에 남는 구슬 하나 있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8원 | 215.800원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창원·대구병원, 최적 감염병관리시스템 구축 확진자 497명 치료 직원 ‘코로나 블루’ 완화도 힘써...감염병 위기관리 TF 구성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올해 2월 말 정부로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창원 병원들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매뉴얼이나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영화 창원병원 내과장을 중심으로 병원 직원들이 합심해 감염·호흡기 내과 전문의 초빙, 이동형음압기 5대 확보 등 안전하고, 최적화된 감염병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결과 초기 환자 치료 애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가 속출했던 대구지역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확진자들을 이송해 치료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창원병원과 함께 감염병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병원도 열악한 시설 환경에 애를 먹었지만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컨테이너 58개를 병원 외부에 설치해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그 결과 4월 28일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까지 대구·경북지역 및 경남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497명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했다.

의료진의 노고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음식, 건강식품, 과일, 라면, 커피 등을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여온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하 공단 병원)들의 활약상이다.

공단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전국의 산업단지 및 탄광 밀집지역에 10개의 병원과 도심권(서울·대전·광주)에 3개의 원이 설치됐으며 총 109개 진료과와 2922개 병상이 운영 중이다. 공단 병원 사업은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으로 나뉜다. 산업재해 환자에게는 병원 내에서 치료는 물론, 각종 보험급여신청, 심리 및 재활상담, 직



강순희(왼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0월 28일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에 선정된 조영화 창원 병원 내과 과장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사진제공 근로복지공단

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공단 병원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의료복지화

브’를 가지로 삼고 있는 공단 병원의 위상도 제고됐다.

공단 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됐지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병원의 경우 올해 9월 감염병 대응을 준비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환자(359명)가 무사히 퇴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담은 ‘코로나19 백서’를 발간했다.

창원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대응 및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 환자 발생 시 내과 호흡기진료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창원병원은 또 코로나19 치료에 사투를 벌인 직원들의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 무기력함, 불안감 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신체적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있으며, 직원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다. EAP를 통한 개인 상담과 온라인 진단 결과 제공, 찾아가는 피지컬 케어, 거북목 테라피 등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선택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공단 병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단병원 관계자는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재난 대응 모의훈련, 감염관리 활성화 활동 등 위기상황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감염 예방·관리 전담 인력 증원 등을 논의·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문안 통제시스템 구축,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위한 출연예산 확보, 비대면 진료시스템 도입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모바일 진료·예약결제·처방전 발급 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1월 열린 ‘2019 메디컬코리아대상’ 시상식에서 10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재활센터 부문)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재활전문센터 8곳에 수중치료센터, 무중력보행치료기, 하지로봇 보행운동기와 같은 차별화된 재활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재활의학 전문의 등이 재활치료 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해 산재 환자에게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재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활치료와 직장·사회복귀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통합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www.kwnews.co.kr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도를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강원도의 이익이 강원일보-네이버를 통해 극대화 됩니다.

江原日報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해양생물 서식지로 변한 침몰선

해양환경공단 ‘제현호’ 잔존유 제거·자원화 첫 사례

침몰선의 잔존유를 제거하고 이를 활용한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 효과가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KOEM)은 침몰선 ‘제현호’ 서식지 조성 작업 결과 부착 생물 및 어류 서식을 확인했다.

제현호는 27년 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제현호 선체 내 잔존유 약 98㎏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제현호의 경우 순수 국내 기술로 잔존유를 제거한 최초 사례다.

공단은 잔존유 제거 이후 선체 일부 11곳을 사각 형태로 절단해 해양생물 서식지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제현호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10·11월에 선체 내 해양생물 서식지(조사구)와 서식지 주변의 일반해역(대조구) 2곳의 조사정점을 선정해 수중촬영 및 자망과 통발을 이용한 어획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해양생물 서식지의 오염 또는 훼손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선체 내·외부에 부착된 저서생물 총 7개 분류군, 11종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망 조사 결과 제현호의 해양생물 서식지가 인근 일반해역보다 해양생물의 출현 양상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내년에 추가 조사를 시행해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 시 제현호 해양생

물 서식지에서만 발견된 별상어, 참돔 등의 어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출현 양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침몰선박 제현호는 잔존유 제거를 통해 해양환경 위협 요인을 예방하고 해양생물 서식지로서 자원화한 국내 첫 사례”라며 “후속 침몰선 관리사업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 어족자원 증가 및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가 관리하는 고위험 침몰선박은 68척, 잔존유는 3994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침몰선에서는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잔존유 제거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단은 올해 부안과 태안 해역에 침몰한 두리호와 피시픽프렌드호의 잔존유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들 선박에 대해 잔존유 존재 여부 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현재 △잔존유 유출 확산 예측 △피해위험 평가 △선체 상태조사 △장애물 확인 △잔존유 유무 확인 △잔존유량 예측 △자원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제현호 잔존유 제거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침몰선박 내 잔존유 적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험성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여성 차별은 인류 과제… 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 줘야”

W 기획 인터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성’에 집중한 의원이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정부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국정감장에서 금융권 성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남녀 임금과 임원 비율을 공개해 주목 받았다.

3일 이투데이가 만난 민 의원은 자신이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학도로서 인류의 역사를 공부한 덕분이다. 대안의 중요성을 아는 그는 차이를 지적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청장 시절부터 지켜온 소신= “사회학을 연구하며 인류 역사에서 여성 차별은 편재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민 의원은 ‘여성 차별’이 인류의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였고 이게 저한테 예민하게 다가왔을 뿐”이라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 활동한 민 의원은 본격적으로 여성을 위한 지원책을 폈다. 그는 비장애 여성들보다 임신·출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지역 장애인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 준비 과정, 컴퓨터 활용 자격증 준비반 과정, 다문화 이해 교실 강사 양성 과정, 모유 수유 도우미 지원 과정 등의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 결과 광산구는 광주시가 주최하는 여성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민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행정기관의 장(구청장)이 됐으니 제가 뭔가를 할 기회가 생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구청 내부인사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다. 민 의원은 “그전까진 머릿속에 있던 여성 차별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착취가 그때 실감 났

사회학 연구하며 문제의식 갖고 구청장 시절 여성정책 적극 펼쳐

성 평등 사회처럼 보이는 건 ‘착시’ 금융권 女임원 비율 5.2%에 그쳐 임원할당·임금공시로 격차 좁혀야



다”고 말했다. 고위급의 행정 공무원들은 남자 직원의 수가 우세했다는 뜻에서다. 민 의원은 “인사차별은 물론, 여성은 동등한 기회도 없었다”며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불리한 측면에 놓여있다는 걸 절감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금녀의 공간’인 이유 = 금녀의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권. 이곳에서의 여성 차별은 더욱 만연하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취임하면서 2020년에서야 민간 은행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보수적인 금융권의 현상을 조직적 특성으로 봤다.

민 의원이 8개 금융권 116개 금융사에서 받은 ‘2019년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 임원 1630명 중 남성 임원은 1544명, 여성 임원은 86명이다. 금융사 임원 중 여성은 5.2%에 그친 것이다. 임금에서도 차이가 났다. 금융권 전체 남성 임원의 평균 임금은 2억1900만 원인 반면 여성은 1억2000만 원이었다. 성에 따라 임금이 1.82배 벌어진 것이다.

그는 “금융기관은 자본주의 사회의 첨병”이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다루는 건 여성의 몫으로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대면 서비스는 여성을 배치하고 실질적인 거래는 남성이 해왔다”며 “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오랫동안 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은 성실하고 부조리에 예민하다”며 “같은 조건에선 여성이 더 성과를 낸다”고 말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강도도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금융이 글로벌화 되며 밤낮없이 일해야 하니 금융계 노동 강도가 상당하다”며 “차별적인 조직 문화와 금융 특성의 결합으로 보수적인 금융이 탄생했다”고 했다.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성은 가정과 노동 강도가 센 일자리를 동시에 지키기는 힘들다는 뜻이 녹아있다.

구청장 시절 민 의원은 “같은 조건이면 여성에게 기회를”이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여성이 더 성과를 낸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경험해보니 여성이 더

성실하고 부조리에 예민하다”며 “조직에 대한 여성들의 충성심과 의리는 뛰어나다”고 했다.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이 더 성과를 낸다는 것도 이런 가치들 때문이다. 여성에게 열린 사고를 하는 민 의원이 금융권에도 작은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 할당제·임금분포공시제 제안= 민 의원은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임원 여성 할당제다. 남성이 압도적인 임원에서 여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여성의 자리를 빼지 말고 능력대로 임원에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능력대로 하지는 건 거꾸로 된 논리”라며 “여성 할당제는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남성들은 30m, 많게는 50m 앞에서 출발하고 여성들은 뒤처져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되물었다. 그는 “그간 여성의 기회가 박탈돼 왔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여성 할당제”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 임금분포공시제다. 임금분포공시제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또는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 임금 격차 비율은 12.9%고, 일본이 23.5%, 미국 18.5%, 프랑스가 13.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인 셈이다.

민 의원은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민 의원은 “기업의 실정을 드러냄으로써 조직 책임자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다”며 “투명성이 주는 여성 차별의 희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임금분포공시제의 도입도 시사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분포공시제를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일부 젊은 남성들이 성차별을 공감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착시’라고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일시적, 부분적으로 성 평등이 실현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착시”라고 강조했다. 여성 차별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뜻에서다. 그는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문수빈 기자 bean@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엘피바이오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크골프클럽으로 100_{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70억명이 하루 세 끼...가장 임팩트 큰 투자영역”

농식품업 투자 강조하는 한상업 소풍벤처스 대표

한때 투자받던 스타트업 대표, 이재웅 前대표 제안으로 합류 성공 가능성 기준 ‘사람’... ‘자기 문제’서 시작한 창업자 선호

“70억 명이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생산할 때 만드는 비료와 물, 가축이 먹는 식량, 분유에서 나오는 가스, 탄소 배출 등 농식품은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임팩트를 추구하는 투자자나 창업자라면 농식품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소풍벤처스 본사에서 만난 한상업(사진) 대표는 한때 소풍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 대표였다. 5년 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제안으로 투자업에 뛰어들게 됐다.

소풍벤처스는 임팩트 투자에 최적화된 액셀러레이터이다. ‘임팩트 투자’는 수익과 같은 재무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까지 달성하는 자본 투자 방식이다. 사회문제 해결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초기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전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비용요소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착한 기업’, ‘착한 투자’라고 칭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

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상식으로 통용되면서 ‘임팩트 투자’는 가장 안전하고 미래 경영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풍벤처스는 설립 후 76개사에 투자를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포트폴리오사들의 기업가치는 총 약 1조126억 원에 달한다. 후속 투자 유치도 32곳(42%)이 받았다. 현재 10% 정도 엑시트(투자금 회수)가 완료된 상태다. 2017년에는 누적 손실을 메꾸며 흑자 전환했다.

최근 한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임팩트 분야는 ‘농식품’이다.

그는 “규모나 성장률로 봤을 때 가장 임팩트가 큰 영역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것만 봐도 농식품에 대한 투자는 7조~10조 원 수준으로 자동차와 IT 산업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우리 생활과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산업이 농식품인데,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게 전 세계 밸류체인하고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나오는 지표의 절반 이상이 농식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가마시는 커피도 에티오피아 원두를 시작으로 수많은 과정을 밟아왔다”며 “코로나 19 이후 식량 안보 이슈도 있었는데 농식품은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말했다.

액셀러레이터 입장에서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사람’을 꼽았다.

한 대표는 “벤처라는 건 리스크가 매우 큰 일인데, 우리처럼 시드(초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검증된 게 없는 팀에 투자해야 한다”며 “결국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본인이 어떤 경험을 강렬하게

하면 할수록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고 이런 창업자들이 결국 해결해 낸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서 시작한 창업자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좋은 액셀러레이터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이배경에는 비용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풍벤처스의 경우 보통 한 팀(스타트업)에 평균 1억~2억 원을 투자하고, 최소 6개월간 밀착해 모든 지원을 하는 인큐베이팅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유지되는 운용 및 관리보수 비율이 벤처캐피탈(VC)과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결국 액셀러레이터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조합 운용으로만 유지되기 어려워 여러 정부 지원 사업이나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역량 분산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유지되는 액셀러레이터의 공통점들은 다 성공한 창업자들이 본인 개인 재산을 털어서 초기 투자자금을 투입한 곳들”이라며 “액셀러레이터들이 성장하고 투자에 집중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의 가치가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포천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한성숙 네이버 대표 4년 연속 올라

한성숙(사진) 네이버 대표가 미국 경제지 포천(Fortun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에 4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한성숙 대표는 이달 4일 포천이 발표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순위에서 36위에 올랐다. 한 대표는 취임 첫해인 2017년 41위, 2018년 36위, 2019년 39위 등 매년 이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포천은 한 대표를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취임 이후 간편결제, e커머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확장해 왔다”며 “이런 투자는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주함에 따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포천이 선정한 ‘50대 유망 기업’ 순위에서는 33위에 올랐다.

조성준 기자 tiatio@

김우정 헤브론의료원장·비전케어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

한미약품과 서울시의 사회는 제19회 한미참 의료인상 수상자로 헤브론의료원 김우정(사진) 원장, 수상단체로 사단법인 비전케어를 각각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원장은 200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 헤브론의료원을 설립해 현지에서 연간 6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현지에서 의사를 채용해 훈련하고 간호대학을 설립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등 캄보디아 보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했다.

비전케어는 39개 개발도상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326회의 무료 안과 진료와 수술을 하고 안경을 무료로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실명예방위원회 협력단체로 세계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양경수·김상구 결선투표로

과반득표자 없어...17~23일에 ‘투쟁 우선’ “사회적 교섭”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5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투표 최종 집계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7~23일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등 임원은 재적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가 18만9309표로 가장 앞섰지만, 득표율은 31.3%에 그쳤다. 기호 1번 김상구 후보는 15만9464표(26.3%), 2번 이영주 후보는 15만6067표(25.8%), 4번 이호동 후보는 2만1603표



(3.6%)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95만7098명 가운데 60만5651명이 참여했다.

두 후보의 결선투표 진출률 이번 선거 구도가 더욱 명확해지는 양상이다. 양경수(왼쪽 사진) 후보는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위원장에 당선되는 즉시 총파업 준비를 하겠다고 내년 11월 3일을 총파업 날짜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상구(오른쪽) 후보는 ‘사회적 교섭’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 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정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평 기자 pepe@

트럼프 조카 메리 “삼촌은 범죄자, 퇴임 후 구속돼야”

7월 폭로 책 이어 또다시 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메리(사진)가 삼촌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4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이며 사악한 데다 반역자”라고 표현했다. 이어 “기소돼 법정에 세워야 할 인물이다 한 사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널드”라며 “도널드를 비롯해 그의 범죄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메리는 “이 사람(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너무 중요시해 거짓말, 반칙, 강도질을 동원해서라도 이기려고 한다”며 “그는 문밖을 나가기 전 최대한 많은 물건을 부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형 프레드 주니어의 딸로 임상심리학 박사인 메리는 앞서 7월 발간한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에서 트럼프 가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BTS, 멜론 뮤직 어워드 6관왕

카카오의 뮤직플랫폼 ‘멜론’이 주최한 MMA2020(멜론 뮤직 어워드 2020)에서 방탄소년단이 6관왕에 올라 상을 휩쓸었다.

MMA2020에서 방탄소년단은 TOP

10,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베스트송, 베스트 댄스, 네티즌 인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특히 본상에 해당하는 상 중 신인상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도 대상 3개 부문을 모두 수상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인사

- ◆농협 <농협중앙회> ◇상무 △김석기(교육지원) △조소행(교육지원) △진종문(교육지원) △서욱원(상호금융) △윤종기(상호금융) △최문섭(상호금융) ◇상무보 △변대근(교육지원) △김장섭(상호금융) ◇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 정용왕 △전북지역본부 정재호 △전남지역본부 박서홍 △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부산지역본부 오세운 △인천지역본부 이강영 △울산지역본부 최정훈 <농협경제지주> ◇상무 △안호근(농협경제) △최선식(농협경제) △김경수(축산경제) △조재철(축산경제) <농협은행> ◇부행장 △강대진 △남재원 △반채운 △유재도 △이수경 △임동순 ◇영업본부장 △김길수(경기) △서덕문(충북) △여운철(충남) △이창기(전남) △김동명(경북) △최영식(경남) △문상철(제주) △박병희(대구) △곽성일(인천) △김석찬

- (광주) △김동수(대전) △황석웅(울산) <농협생명> ◇부사장 △신상중 △허욱남 <농협손해보험> ◇부사장 △김용희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IV대학 학장 박봉순
- ◆SK하이닉스 ◇신규 연구위원(Fellow) 선임 △김백만 이민규 이상호 이세호 이주엽
- ◆중앙그룹 ◇중앙홀딩스 △총무팀장 이상훈 △부동산팀장 성현목 △전략2팀장 박철한 △재무팀장 겸 제어컨텐츠리 재무팀장 홍순철 ◇중앙일보 △경영기획팀장 하승진 △총무팀장 류승현 ◇JTBC스튜디오 △콘텐츠사업부문 콘텐츠사업4팀장 이아름 △ 콘텐츠사업3팀장 윤태진 △ 콘텐츠사업2팀장 현향단 △ 콘텐츠사업1팀장 임지은 △전략·디지털본부 신성장팀장 이태호 △ 전략팀장 주현태 △ 스튜디오제작팀장 김학준 △ 비지니스솔루션팀장 박정재

부음

- ▲박기완(전 한신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씨 별세, 서원석(개인 사업) 씨 부인상, 서기원(아시아항공 PR팀 차장)·유리(변호사) 씨 모친상 = 5일,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2-844-5163
- ▲조명환 씨 별세, 정윤호(안동MBC 국장) 씨 장인상 = 5일, 안동성소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010-3522-1105
- ▲고성광(전 대전MBC 사장) 씨 별세, 이은희 씨 남편상, 고재만·재범·재우 씨 부친상 = 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40
- ▲한우섭 씨 별세, 정옥자 씨 남편상, 한재원(현대해상 전무)·재훈(자영업)·재준(동력정보통신 상무) 씨 부친상 = 5일, 서

- 울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7일 오전 11시 40분, 02-3010-2000
- ▲박기수(전 한의사) 씨 별세, 박주희(MBC 27기 탤런트) 씨 부친상, 안용남(에스피랩 대표) 씨 장인상 = 5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7일 오전 9시, 02-2030-7906
- ▲박모임 씨 별세, 김기봉(YTN 국제부장)·지혜·현혜·민혜 씨 모친상, 김문재(전 경남서부보훈지청장)·이용기(전 이엔디 대표) 씨 장모상 = 5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7일 오전 8시, 1666-5000
- ▲성성웅(전 서울시의원) 씨 별세, 성진희·은희·하균(성진빌딩 대표)·지수 씨 부친상, 박종환(영광교통 대표이사)·김석주(이패스코리아 전임교수)·한정렬(재미) 씨 장인상 = 4일, 고려대구로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070-7606-4216

김대현 호반건설 기획부문 대표 김민형 前 SBS 아나운서와 결혼



김대현(왼쪽 사진) 호반건설 기획부문 대표가 김민형(오른쪽) 전 SBS 아나운서와 화족을 밝혔다.

6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남 정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 전 아나운서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100명 미만의 가족과 지인만 모여 소규모로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작년 10월부터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결혼설이 나왔다. 1988년생인 김 대표는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의 장남으로 호반건설의 지분 54.7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1993년생인 김 전 아나운서는 2018년 SBS에 입사해 ‘주말 8뉴스’, ‘궁금한 이야기 Y’ 등에 출연하며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온라인 유통의 효율과 수익성은 기술의 진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세주로 등장해야 유통업을 자기 파괴(self-destruction)의 운명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매업의 종말(Retail Apocalypse)'이 도래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팬데믹이 오래가면서 유통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온라인 유통은 팬데믹 덕분에 각광을 받아 급성장하는 반면,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은 급격히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혁신의 추세에 부응해 온라인 원격 거래가 미래의 유통채널로 부상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확산할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디지털 기술이 앞에서 끌고 팬데믹이 뒤에서 미는 유통산업의 변화가 앞으로 공급사슬과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가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팬데믹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남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이나에 따라 소비 행태가 달라진다. 원래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는 쇼핑과 구매를 분리해 쇼핑은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에서 할 것으로 예

상됐다. 이런 전망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옴니채널이 타개책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는 차단과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로 외부 활동을 억제한다. 안전과 생존을 위해 소비 활동도 온라인 비대면 구매에 치중하며 오프라인 대면 구매는 최소화한다. 이런 팬데믹 시대가 오래가면 대면 소비에 의존하는 전통 유통업은 멸종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돼 팬데믹이 사라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오프라인 유통은 살아남겠지만 '주변 채널'로 밀려나고 온라인 유통이 '중심 채널'로 등장할 것이다. 미래의 유통업 지형은 구매는 온라인, 경험은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의 정의와 영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에 유통업은 '구색사업'으로 위축될 것이며 경험서비스가 주력사업이 될 것이다. 온라인 유통도 유통업은 단지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사업'으로 전락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락, 문화,

건강, 정보, 금융 등의 다른 서비스사업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전통적 의미의 유통업은 퇴색되고 모두 서비스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유통업은 본질적으로 장치산업이다. 대량구매,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매스마케팅이 유통업 게임의 논리이며 승자가 시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의 양상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승자독식의 법칙은 온라인 유통업에서 더욱 강력히 작용할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온라인 유통은 상품과 가격 정보가 공개되며 실시간 비교평가가 용이하다. 마치, 포커 게임에서 서로 카드를 보여주듯 치는 것과 같다. 당연히 블러핑(bluffing)이 통하지 않으며 일등패를 든 사람이 항상 이기게 돼 있다.

온라인 유통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업체가 승기를 잡을 것이며, 이를 위해 치열한 가격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로켓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과 같은 배송 경쟁도 서비스 비용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경쟁이다.

온라인 소비는 오프라인 소비와 질적으로 다르다. 한꺼번에 몰아서 일괄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는 필요할 때마다 소량구매하며 그것도 가격을 비교하며 가장 싼 것을 구매한다. 여기에 단품을 일일이 배송해 주어야 하는 서비스도 요구한다. 온라인에서의 경쟁수단은 오로지 가격밖에 없어 출혈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규모를 늘려도 수익을 내지 못해 적자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결국, 모두가 손해 보며 1등 기업이 가장 크게 손실을 안게 되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발생할 것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한 승자기업도 유통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다른 서비스로 확장해 다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온라인 유통의 효율과 수익성은 기술의 진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세주로 등장해야 유통업을 자기 파괴(self-destruction)의 운명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소매업의 종말(Retail Apocalypse)'이 도래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AI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산업 및 공공서비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국세청은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세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과세권자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탈세 등도 더욱 수월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과세권자에게 집중되는 상황만 낳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납세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작년에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 세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

다. 그동안 납세자는 세금의 신고·납부 또는 불복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거의 활용하지 못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구축은 납세자를 위한 것보다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권자 중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다. 개인 신상은 물론이고 가족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수입과 지출의 세밀한 내용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하루하루 일상이 국세청의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과세권자인 국세청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차원의 부작용만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납세자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세금 신고를 비롯하여 조세불복 절차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정보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구 설치 등도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세정보의 공개를 극히 꺼려왔으며 허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였다. 법령 등 제도에서도 많은 제약을 두고 있었다. 연구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종전보다 수월하게 국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쉽지 않다.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이 국세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국세청이 매년 제공하는 국세통계연보 이외에 개별적으로 국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세권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세금의 부과징수 및 탈세 방지 등에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면서 헌법에 의거 태생적으로 납세의무가 주어지지만, 현대사회에서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불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납세협력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또 다른 세금이라는 점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민사 및 형사소송의 소장을 미리 작성해 보거나 형량도 예측해 보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등장했다. 세금신고는 납세의무의 일환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을 민간시장에 의존시켜 납세협력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한 조세행정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자보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자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납세자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의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불복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세권자,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이 요구된다.

☆ 제이 밴 앤델 명언
"재능은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세계 최대 직접 판매회사인 미국 압웨이의 공동 창립자.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좋습니다'를 모토로 고교 친구와 시작한 기업을 그는 40여 년 만에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그룹으로 키웠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924~2004.

☆ 고사성어 / 승거목단(繩鋸木斷)
노끈으로 나무를 자른다는 뜻이다.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북송(北宋)의 장괴에(張栻)가 송양(崇陽) 현령으로 재직할 때 관청의 돈을 훔친 관원에게 쓴 판결문에서 유래했다. "하루에 1천이면 천 일엔 천 전이요, 노끈에 쏘려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一日一錢 千日千錢, 繩鋸木斷 水滴石穿]." 출전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

☆ 시사상식 / 갈세
임차 기간만큼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단기 임차 방식이다. '임대료를 먼저 깔고 장사한다'는 말에서 비롯됐다.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6개월~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를 선납한다. 오피스텔, 상가 임대시장, 대학가 방을 빌리려는 학생들이 흔히 쓴다.

☆ 우리말 유래 / 산통 깨다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떨어 버린다는 뜻. 길이 10cm가량의 항복이나 금속 혹은 대나무에 괘(卦)를 새긴 산가지 또는 산대를 넣은 통을 산통이라 한다. 산통을 대어섯 번 흔든 후 거꾸로 들어 나오는 산가지의 과로 점을 치는 것을 산통점이라고 한다.

☆ 유머 / 아빠 영어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이 생뚱맞게 물었다. "헤드는 '머리'잖아요? '라인'은 영어로 '선'이구요." 아빠가 "당연한 걸 왜 묻니?"라고 했다. 아들이 "그럼 '헤드라인'은 뭐죠?"라고 묻자 아빠가 자신 있게 내놓은 답. "가르마."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조성준 IT중소기업부/tiatio@

중 판호 발급 지속, 정부 노력에 달렸다

상태에 놓인 게임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전망이다. 일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게임업계는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의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중국 게임이 들어와 경쟁하다 보니 수익은 줄어들고, 새로운 게임은 개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도 있었다. 규제 없이 국내에 진출한 중국산 게임들은 반짝 이벤트를 통해 단기간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후 업데이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방치한 사례도 있다. 이에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십시일반 모여 소송을 진행하

기도 했지만, 소재지가 해외에 있는 만큼 기대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했다. 정부가 판호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들은 작거나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국 판호 문제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정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의도가 어쨌든 외자판호 발급은 충분히 반길 만하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의견이다. 국가와 국가의 문제로 시작된 사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등 정부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약 4년이 걸렸다.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할 기회를 얻은 기간이다. 이 기간에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매출을 늘리기 위해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으로 눈을 돌리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이 문을 닫아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 중국 진출이 막힌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게임 시장은 중국 게임과의 경쟁판이었다. 중국 현지에서 개발된 게임들은 어설픈 한국어 번역을 진행하고 국내 시장에 들어왔다. 모바일 게임 지식재산권(IP)은 과거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이용자들은 국내 게임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은 부익부 빈익빈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

인류 역사는 늘 걱정과 함께했다. 그중 하나가 핵겨울(nuclear winter)이다. 1983년 12월 23일, 학술지 '사이언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던 칼 세이건과 그의 제자 오언 톤 콜로라도대 불더캠퍼스 교수 등 5명의 과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다. 핵전쟁이 터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핵겨울'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논문이 가져다준 충격은 컸다. 당시 논문은 미국과 옛 소련(러시아)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1980년대 미국과 옛 소련이 갖고 있던 1만7000개의 핵무기는 1만2000 Mt(메가톤)급 파괴력이 있었다. 폭발로 발생한 먼지와 재는 1~2주 안에 성층권으로 올라가 햇빛을 막는다. 결국, 지표면의 온도는 영하 15~25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다행히 인류는 지금까지 핵전쟁을 피했고, 핵겨울도 없었다.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들여 완공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 소재) 연구팀이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량 증가 등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56개 논문을 분석해 국제 학술지 '탄소 중앙학'에 소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 증가 등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서 최대 50만 명이 사망한다.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급증하고, 특히 폐암이 많이 증가한다. 기후변화는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도 높인다.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항간에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게 되면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고대 균이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종말로 내몰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히 덥고 추운 문제가 아닌란 점이다.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데 있다. 2100년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국내총생산(GDP) 산출량 손실은 적게 잡아도 10.57(월리엄 노드하우스 미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추정치)-29.50%(마셜 버크 미 스탠퍼드대 교수와 솔로몬 상 및 에드워드 미구엘 미 버클리대 교수 추정치)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GDP로 산출한 경제 규모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기후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서 세계 각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도 커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의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저소득층일수록 기후 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과 같은 국제기구는 '그린스완(green swan)'을 경고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런 피해가 보험·대출·투자 등 금융 기관에 쌓이면 금융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평가) 모형' 테스트에서 금융권이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면 2028년 국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최저 4.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문제에서는 현재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 몸의 질병을 치료할 때 예방이 최선이고, 조기 발견이 차선이며, 증세가 악화한 후 치료에 나서는 것은 최악이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보다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문제에도 쓰일 수 있다.

"입춘(봄의 기운)은 가장 추운 때에 이미 시작된다." 고대 동양의 현인들은 절기를 나누면서 이런 우주의 이치를 깨달았다. 지금은 이런 선각적 지혜의 눈이 필요한 때다.

kmh@

시설

최악 불확실성에 기업 경영계획도 못세운다

국내 주요기업 10곳 중 7곳이 아직 내년 경영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환경 변화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의 충격을 벗어 나기 힘들다는 암울한 전망이 많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긴급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151개사의 71.5%가 내년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에 주요 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철강과 자동차부품, 건설, 일반기계 등 주력 산업에서 경영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내수 부진(29.8%)이 가장 컸고, 수출 애로(24.2%), 원가부담(22.8%), 생산 차질(8.7%) 순이었다.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42.9%)가 첫손 꼽혔다. 다음은 환율·금리 변동 등 금융 불안(19.3%), 고용·최저임금 등 노동정책(14.5%), 미·중 분쟁 등 무역 불확실성(9.8%), 정치적 갈등과 기업규제(8.1%)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나라 안팎의 코로나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다. 백신 개발과 조기 접종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확진자는 6600만 명, 사망자는 150만 명을 넘었다.

국내 확진자 또한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 이후 견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6일에만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곧 1000명대로의 폭발적인 증가세도 점쳐진다.

정부는 다시 수도권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다. 체육관 등 집합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도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경제보쇄 조치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의 2차 충격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이 2022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6일 내놓았다. 수출이 늘고 있지만 물량보다는 단가 상승에 따른 불안한 회복이고, 소비와 설비·건설 투자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황의 장기화로 대부분 산업의 고용창출력도 급격히 후퇴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고 하강 위험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기업 대책 말고는 뾰족한 길이 없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위기를 넘기기 위한 금융 지원, 규제의 철폐 등이 기업들이 꼽고 있는 가장 절실한 정책과제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경기 판단과 기업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이 현실과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박은평의 개평(概評)



금융부 차장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퇴근 후 맥주 한잔하며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의 낙이 됐다. 최근 '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보면서 미국의 금주령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 배경은 1922년. 미국 정부가 금주령을 내린 시기다. 금주령은 말 그대로 정부가 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1920년부터 13년 동안 금주령을 시행했다. 주류 유통을 없애 음주로 인한 범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다. 동기는 '선(善)'했다. 하지만 결과는 대규모 범죄조직을 거느린 마피아들이 밀주 시장을 장악했다. 술의 가격은 급등했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개츠비가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마피아의 하수인으로 일하며 술을 만드는 은밀한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최고금리 인하... 취지는 '선'하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임금 올려주고, 투기세력 눌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잡아주고, 서민들이자 낮춰주겠다니 '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두 자릿수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대로 푹 떨어졌다. 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직원 해고가 줄을 이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수조 원을 투입했다. 인상률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져 경영 부담도 커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대책은 더하다. 20여 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고 있다.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돈줄마저 봉쇄하고 나섰다.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돈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

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할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에 앞서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낼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선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 풀어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게 궤도를 수정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pepe@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 3차 유행 후 KDI의 경기진단은

이번 주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분석과 국가 및 가계의 빚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또한 한국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통계도 나온다.

KDI는 7일(월)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지난달엔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며 "유럽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후 한 달 사이 유럽·미국은 넘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3차 유행에 접어들고 방역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소비는 물론 세계 교역의 위축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나아진 경기진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화) 10월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재정동향은 각 달의 세입과 세출, 이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10월 재정 동향은 9월에 악화된 수지가 개선되는지가 관심이다. 9월은 원래 세수가 적은 달인 데다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은 늘어나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108조4000억 원

까지 불어났다. 국가채무도 800조3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9일(수) 한국은행은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10월 말 기준 통계에서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68조5000억 원으로 9월 말보다 10조6000억 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인 8월 11조7000억 원보다는 적지만, 9월(9조6000억 원)보다 1조 원 많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09조4000억 원)은 한 달 사이 6조8000억 원 늘었다. 전세자금은 3조 원 늘면서 3개월 연속 3조 원대를 유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8일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시작으로 9일 '2019년 신혼부부' 통계, 11일(금)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발표한다.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선 1인가구의 생활 양태를 비롯해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인구, 건강, 교육, 문화, 주거, 교통, 환경 등 올해 기준 각종 통계치가 공개된다. 정리·홍석동 여론조사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김치플러스로 비스포크 라이프를 완성하다

초정온 메탈클링으로 어떤 김치도 최적으로 지켜주고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는 더 예뻐지고
가족의 크기에 맞춰 사이즈까지,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로 모두 맞추다

비스포크를 더 완벽하게

BESPOKE 김치플러스



상온 김치숙성 모드 | 저염김치 모드 | 구임김치 모드

가전을 나답게.